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주 희 교수지도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모-사위 갈등에 관련된 제변인 연구

2016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원 정 은

장모-사위 갈등에 관련된 제변인 연구

김 주 희 교수 지도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원 정 은

인 준 서

원 정 은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는 부계 중심에서 양계 중심의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설명하는 핵심 현상으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장모-사위 갈등’ 양상이 논의되고 있다. 씨암탉을 잡아주며 사위를 백년손님으로 대접했던 장모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장모-사위 관계에 관해 연구하고, 갈등의 이유와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을 가족체계 이론과 교환이론, 자원이론, 애착이론을 배경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위 관련 변인, 아내 관련 변인, 장모 관련 변인, 자원이전 변인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사위 관련 변인은 연령, 학력, 직업, 수입 수준,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부모애착을 하위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아내 관련 변인은 고부갈등과 결혼만족, 장모 관련 변인은 처가와의 거리, 방문수준, 연락수준, 결혼찬반 경험, 자원이전 변인은 장모→사위 자원이전, 사위→장모 자원이전을 하위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사위-부모애착이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를 조절할 것으로 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설문지를 개발하여 1차 사전 조사 후 수정 및 보완하였으며, 의도적 표본 추출법에 의거해 서울·경기 거주자 400명에게 배포하여 378부의 유효부수를 획득하였다.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위-장모 갈등은 사위 관련 변인 중에는 사위의 학력과 사위-부모애착이 유의미한 부(-)의 영향요인으로 실증되었다. 아내 관련 변인으로는 고부갈등은 정(+), 결혼만족은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장모 관련 변인으로는 처가와의 거리, 처가 방문정도 및 연락 정도,

결혼 전 찬반경험이 모두 사위-장모 갈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장모-사위 간 자원이전은 장모로부터의 경제 자원이전은 갈등과 정(+), 정서 자원이전은 부(-)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사위로부터의 자원이전은 경제 자원이전은 갈등과 부(-), 도구 자원이전은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고부 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은 사위의 원부모와의 애착에 의해 정(+의 방향으로 조절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장모-사위 갈등이 당사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체계라는 커다란 관계 속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을 의미하며, 장모-사위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의 희생과 이해가 아니라 하위 체계인 부부를 포함하여 전체 가족체계 속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모-사위 갈등을 가족체계 속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한 점이다. 둘째, 장모-사위 갈등을 장모의 사위에 대한 불만과 장모의 딸에 대한 불만으로 하위 요인을 규명한 점이다. 이는 장모-사위 갈등을 단일 차원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 비해 보다 세밀한 장모-사위 갈등에 대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사위-부모애착의 역할을 고찰한 점이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자원이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자원교환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점을 규명한 점이다. 그러나 서울·경기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며, 장모와 사위를 함께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용어의 정의	6
II. 이론적 배경	9
1. 가족이론	9
1) 가족체계 이론	9
2) 교환이론	11
3) 자원이론	14
4) 애착이론	17
2. 장모-사위관계	21
1) 장모-사위관계와 갈등	21
3. 장모-사위 갈등 관련 변인	28
1) 사위 관련 변인	29
2) 아내 관련 변인	34
3) 장모 관련 변인	37
4) 경제적 · 도구적 · 정서적 자원이전	39
III. 연구 방법	43
1. 연구모형	43
2. 연구문제	44
3.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45

1) 표본 설계 및 설문지 구성	45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46
3) 통계분석 방법	57
IV. 연구결과 및 해석	58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58
1) 사위 관련 특성	58
2) 아내 관련 특성	60
3) 장모 관련 특성	61
4) 구성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62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63
3. 분석결과	66
1)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검증	66
2)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영향 검증	78
3)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과의 관계에서 사위-부모애착의 조절효과	86
V. 결론	92
1. 결론 및 논의	92
1) 결론 요약 및 논의	92
2) 시사점	96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98

참고문헌

ABSTRACT

부 록

표 목 차

<표 II-1> 국내 장모-사위 관계 연구 동향	26
<표 III-1> 장모-사위 갈등 신뢰도 검증 결과	47
<표 III-2> 사회인구학적 특성 측정도구	48
<표 III-3> 사위-부모애착 신뢰도 검증 결과	50
<표 III-4> 고부갈등 신뢰도 검증 결과	51
<표 III-5> 결혼만족 신뢰도 검증 결과	52
<표 III-6> 장모-사위 자원이전 신뢰도 검증 결과	54
<표 III-7> 사위-장모 자원이전 신뢰도 검증 결과	56
<표 IV-1>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59
<표 IV-2> 연구대상의 남편-아내 간 비교 우위 특성	60
<표 IV-3> 연구대상의 장모관련 변인 특성	61
<표 IV-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63
<표 IV-5> 상관관계 분석결과	65
<표 IV-6> 연령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66
<표 IV-7> 학력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67
<표 IV-8> 직업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68
<표 IV-9> 월평균 수입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69
<표 IV-10>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0
<표 IV-11>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0
<표 IV-12>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72
<표 IV-13>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73
<표 IV-14> 처가와와의 거리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4
<표 IV-15> 처가 방문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5

<표 IV-16> 처가 연락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6
<표 IV-17> 결혼 찬반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77
<표 IV-18> 사위-부모 애착과 장모-사위 불만 관계	78
<표 IV-19> 사위-부모 애착과 장모-딸 불만 관계	79
<표 IV-20>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80
<표 IV-21>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81
<표 IV-22>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83
<표 IV-23>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85
<표 IV-24>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결과	87
<표 IV-25>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89
<표 IV-26> 분석결과 요약	91

그림 목 차

[그림 III-1] 연구모형 1	43
[그림 III-2] 연구모형 2	44
[그림 IV-1]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관계에의 사위-부모애착의 상호작용 효과	88
[그림 IV-2]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 관계에의 사위-아버지 애착의 상호작용효과	8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갈등은 인간관계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 측면이다. 갈등의 발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가장 극단적인 방법인 전쟁까지를 포함해서, 인류 발전의 한 동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관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당사자 개인에게 커다란 고통이 될 뿐만 아니라 '앵그리(angry) 사회'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 가운데 가장 주된 것은 가족 갈등이며 그중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은 세대 갈등의 핵심이다. 또 하나의 지속적인 가족 갈등은 고부갈등으로, 현대 사회에서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더욱 심화되어 TV 드라마의 중심 소재가 될 정도로 우리 일상의 흔한 갈등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장모-사위 갈등이 고부 갈등 못지않게 주된 가족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예전부터 잠재되어 있었을 수는 있으나 오래된 고부 갈등에 비해 새로운 갈등 개념이며, 한국 사회에서 장모-사위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행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사회 문제의 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은 가족 갈등의 새로운 축으로 떠오르는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을 연구, 조사, 분석해 봄으로써 장모-사위 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장모-사위 갈등의 해소 방안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우리나라의 전통 사회는 부계적 친족관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로 진입한 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고 핵가족화와 개인주의라는 영향이 심화되면서 크게 변화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 사회는 사회적 지원망으로서 아내의 친족과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부계 중심에서 탈피하여 양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한경혜, 윤성은, 2004), 아내와 딸이 중심이 되는 신(新)모계 사회가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받기도 한다(국민일보, 2014. 04. 25). 보통 여성의 입장에서 시가는 명절과 제사, 경조사 등의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의례적 활동을 함께하고 경제적·도구적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이라면 친정과는 자발적이고 친밀한 사교적 활동을 함께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편들도 처가 친족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처가의 부모가 딸의 가정생활을 개입하고 조정하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핵가족화로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아들 선호 사상이 상당히 약화되어 부모는 아들 못지않게 딸을 교육시키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게 되었다. 여기에다가 여권신장과 함께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진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친정 부모는 딸을 결혼시킨 뒤에도 딸과 함께 살거나 가까운 곳에 살면서 육아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향이 늘어났다.

실제로 2011년에 발표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시집살이 하는 여성은 1990년에는 약 44만5천 명, 2010년에는 약 19만8천 명이며, 처가살이 하는 남성은 1990년에 약 1만8천 명, 2010년 약 5만4천명으로 나타나 지난 20년 동안 시집살이하는 여성은 절반 이상 줄고, 처가살이 남성은 약 세 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14년에 기혼남녀 1,8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친정(8.7%)이 시댁(3.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자녀 양육을 통해 장모의 위상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장모는 가까이 있는 딸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는 만큼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데, 딸이 사는 모습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사위에게 대농

고 잔소리를 하거나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장모와 딸 사이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을 경우, 장모와 사위 간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남순현, 한성열, 2002).

장모-사위의 갈등이 부부 갈등의 한 요인이 되면서 과거와 달리 장모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위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여성들은 이혼 사유로 '고부갈등'을 네 번째 이유로 답한 데 반해 남성들은 '처가의 간섭과 갈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MBC 뉴스, 2014. 09. 08). 또한 장모-사위 갈등으로 인한 이혼은 결혼 초기인 35세 이하에서 특히 많이 나타난다. 재혼 관련 회사에 접수된 상담 신청자를 분석한 결과, 35세 이하 재혼 상담 신청자 329명(남성 141명, 여성 188명)의 이혼 배경으로 남성의 26.2%가 '처가의 간섭 및 갈등'이라고 응답해 장모-사위 갈등이 심각한 가족문제로 떠올랐음이 드러났으며, 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장모-사위 갈등의 원인을 장모의 심한 간섭, 의존적 아내, 가부장적인 남편의 의식 등으로 분석하였다(매일경제신문, 2014. 02. 26).

장모-사위 관계는 고부 관계와 마찬가지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친족 관계이다. 현대의 친족 관계는 문중 위주의 부계 친족 개념이 약화되고 그 범위가 축소되어 핵가족 2세대 중심의 가족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즉, 과거와 같은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는 해체되고 부모와 기혼 자녀 중심의 친족 관계로 재구성되는 것이다(정현숙, 옥선화, 2008). 따라서 부모와 기혼 자녀의 관계는 서로 경제적·도구적·정서적 도움을 주고받고 의존하면서 오히려 중요해지고 있다(이여봉, 2011).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모와 사위 관계도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더 긴밀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될 것이며(Reczek, Liu, & Umberson, 2010), 관계의 중요성도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특히 씨암탉을 잡아주며 사위를 백년손님으로 대접했던 장모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의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

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장모-사위 관계에 관해 연구하고, 갈등의 이유와 해결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장모-사위 관계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 이루어졌으며, 양적으로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며느리와 사위를 대상으로 고부관계와 장모-사위 관계를 함께 연구한 박정윤(1994)의 연구가 있었으며, 그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장모-사위 갈등이나 관계만족도를 부부의 결혼 만족도와 연결시켜 연구하였다(김혜리, 문정희, 안정신, 2012;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이은아, 2013; 정희정, 2009; 전세송, 김수경, 2012). 이밖에도 사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부모 부양의식과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한 장인·장모 부양부담감에 관한 연구(우미향, 2004), 사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법에 따른 장모-사위의 관계의 질 연구(오혜정, 박경란, 2011), 사위의 가족지향성이 장모 부양의식 및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전세송, 김수경, 전귀연, 2012), 장모-사위 갈등과 자기분화가 사위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이은아, 2013) 등이 있다.

또한 여러 연구자들이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일수록 부부관계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에 만족하며, 배우자 가족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서영희, 2005; 이정화, 2011) 사위의 부모애착이 장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데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사위를 중심으로 한 장모-사위 관계 연구는 관련 변인의 범위를 넓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심각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매우 부족하며, 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장모-사위 관계에서 긍정적인 측면인 관계만족도나 관계의 질 등도 있지만, 선행연구를 보면 세대관계에서의 부정적 관계의 질이나 부정적인 상호작용

이 실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보다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크므로(Rook, 1984)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의 개념인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종합하면 장모-사위 갈등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이론적 틀 안에서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을 찾자 하였다. 장모-사위 갈등은 사위가 부인의 원가족(어머니)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이며, 장모와 아내의 정서적 밀착이 장모-사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위의 원가족, 부인 그리고 장모를 함께 고려한 가족체계 이론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사위 관련 변인, 부인 변인, 그리고 장모 관련 변인을 추출하였다. 또한 교환 이론과 자원 이론에 근거하여 장모와 사위는 보통의 부모와 성인 자녀처럼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자원의 종류나 많고 적음이 둘 간의 갈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고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자원이전 변인을 선택하였다. 여기에 애착이론에 기반 하여 사위가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유지하는 경우 장모와의 관계를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심리적 태도가 장모와의 갈등을 낮추거나 조절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위의 부모애착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 논문의 주된 관심사는 이러한 다각적 변인들이 각각 어느 정도로 장모-사위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여러 변인들 가운데서도 자원 관련 변인들과 정서 또는 애착 관련 변인들의 두 가지 영역에 속한 변인들 중 어떤 변인들이 주된 영향으로 작용하는지에 놓여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가족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폭을 넓히고, 장모와 사위 간 관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1) 장모-사위 갈등

장모-사위 갈등이란 장모와 사위 간에 경험하는 모든 갈등이다. 우리나라의 호칭법에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고부(姑夫)처럼 장모와 사위 간의 관계만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다. 장모-사위 관계를 '옹서(翁婿)'관계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옹서'를 장인과 사위의 관계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의 갈등 관계를 '장모-사위 갈등'으로 정의한다.

2) 원가족

원가족이란 자신이 출생해서 성장한 가족으로, 한 개인이 생리적, 정서적, 신체적인 삶을 시작하는 단위이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 1985).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의미한다(이종원, 2002).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위의 개인적 변인으로 사위와 사위의 원가족(아버지와 어머니)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3)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에 대한 주관적 감정으로서 항상 변화하는 동적인 개념이다(박찬미, 서병숙, 1987). 또 Roach, Frazier와 Bowen(1981)은 결혼만족척도(Marrrtal Satisfaction Scale) 연구에서

'결혼만족'을 자기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좋아 하는가 또는 싫어 하는가의 선호하는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Rollins와 Feldman(1970)도 결혼만족을 결혼생활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욕구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가를 경험하는 주관적 감정과 태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를 개인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얼마만큼 만족 하는가 또는 불만족 하는가의 연속상의 태도라고 본다.

4) 자원이전

'자원'을 Maloch와 Deacon,(1966)은 '요구 충족을 위해 사용되는 또는 요구 충족의 가능성을 인정받는 수단'으로 정의하였으며, Gross, Crandall과 Knoll(1980)은 '목표를 달성하고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자원이전은 그 주체와 내용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한데, 대체로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영역으로 나눈다(김두섭, 박경숙, 이세용, 2000). 본 연구에서도 생활비나 경조사, 용돈 등의 금전이나 물질을 공급하는 경제적 자원이전,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주거나 식사, 세탁, 청소, 심부름 등의 신체적 독립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구적 자원이전, 감정과 정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정서적 자원이전으로 구분한다. 또한 장모가 사위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장모→사위 자원이전, 사위가 장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사위→장모 자원이전이라고 한다.

5) 부모애착

부모애착이란 자녀와 부모 간에 형성된 정서적, 애정적 유대감으로서 (Bowlby, 1958), 자녀의 부모에 대한 신뢰감, 감정과 사고에 대한 원활한 의

사소통의 정도,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단절 및 분노로 인한 소외에 관한 내용을 의미한다(최미경, 2000). 부모애착은 부 애착과 모 애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위의 부모애착이라는 정서적 측면이 장모-사위 관계 및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 이론

장모-사위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론 중 가족체계 이론, 교환 이론, 자원 이론, 그리고 애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족체계 이론

정신분석가 Bowen은 1950년대에 정신분열증 환자와 관련된 가족 구성원들을 개별적으로 치료하면서 가족 전체 체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즉 환자 개인의 치료에 가족을 포함시켰을 때 치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고 가족의 정서적 밀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에 가족을 전체의 체계로 분석하는 치료접근법을 실시하여 가족체계 이론을 형성하였다.

‘가족체계 이론’이란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 관계 체계로 보는 것으로 여기에서 ‘체계(system)’란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틀을 말한다. 이때 가족 구성원은 체계를 이루는 요소에 해당하는데, 요소들의 합은 체계로서 움직일 때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Boss, Doherty, LaRossa, Schumm, & Steinmetz, 1993).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각 가족 구성원을 단순히 모아 놓은 것만으로는 체계를 알 수 없고 부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야만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특정 개인, 특정 가족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가족 단위, 가족 구성들 간의 관계 및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Vosler, 1989). 왜냐하면 이 관점에서 가족원은 체계의 구성요인으로 다른 구성요인과 상호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가족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른 가족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을 하지 않고, 아들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는 더 잔소리를 한다. 이 둘의 행동은 인간관계라기 보다는 순환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가족체계에서 구성요인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기 때문에 구성요인들의 행동은 상호영향(mutual influence)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다.

Satir(1972)는 가족원들이 서로의 변화에 대처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어느 한쪽에 손을 대면 다른 쪽도 움직이는 모빌에 비유하였다. 한 구성원이 상황에 반응하면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변화하는 체계에 적응하기 위하여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움직이게 되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전체로서의 체계가 변화한다고 보았다(Burr, Day, & Bahr, 1993).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어휘, 감정과 행동, 심지어 자아개념까지도 바뀌게 할 수 있다.

Bowen은 이 가족체계의 핵심 원리를 '정서'로 보고, 인간은 정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서 과정을 통해 가족을 형성하며, 가족 구성원들이 감정적으로 연결된 정서적 유기체가 바로 가족체계라고 설명한다.

가족체계 이론에서는 가족끼리 서로 연결되어 함께 연합하려는 욕구인 '연합성(togetherness)'과 가족 구성원이지만 자기 자신만의 개인적인 정체감을 형성하려는 '개별성(individuation)'이 동시에 존재함으로써 서로 균형을 이루며, 이 균형이 깨질 때 가족체계는 역기능이 나타난다고 본다. 가족의 연합성이 너무 강할 경우 가족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가족 전체의 문제에 몰두하거나 의존하고 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며, 반대로 개별성이 너무 강할 경우에는 정서적 친밀감이 약한 가족 구성원이 가족 내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다.

또한 가족체계는 다양한 수준의 위계성을 가지면서 존재한다. 즉, 하나의

가족체계는 부부 하위체계(marital subsystem), 부모-자녀 하위체계(parental subsystem), 형제자매 하위체계(sibling subsystem) 등의 여러 하위체계를 가질 수 있는데, 각각의 하위체계들이 특정한 위계를 이루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전체로 유지된다(Minuchin, 1974).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부, 부모, 형제자매 하위체계 외에도 친·인척 관계가 중시되어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박병석, 1995). 특히 배우자의 가족(인척 관계)은 매우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운 관계이며, 다른 하위체계에서보다 역할 상에서 상호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갈등이 생기기 쉽다(구자경, 2000). 특히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겪는 관계로 가족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최근에는 사회·문화의 변화로 장모와 사위 역시 부부 체계, 부모-자녀 하위 체계에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모-사위 갈등은 사위가 부인의 원가족(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인 만큼 가족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장모와 사위는 관계가 맺어질 때부터 딸을 매개로 부모-자녀 하위 체계, 부부 하위 체계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장모-사위 관계를 부인의 원가족(어머니)과 부인, 그리고 남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교환 이론

교환 이론은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 등의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온 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손실이 큰 행동은 피하고 투자한 이상의 보상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타인과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여 비용, 보수 등의 관계가 유리하면 이제까지 취한 행동을

지속하고, 불리하면 그 관계를 개선하거나 중지하여 새로운 관계를 만든다(유영주, 김순옥, 김경신, 2013).

현대의 부모와 성인 자녀는 자녀의 일방적인 부양이나 부모의 피부양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서로 자신이 가진 교환자원을 얼마나 주고받을 수 있는냐에 따라 동거, 애정적 유대, 갈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교환 이론으로 접근할 수 있다(우미향, 2004). 즉 부모와 자녀 모두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 기대에 근거하여 자원이전 행동을 한다(이윤정, 고선강, 2011).

부모와 기혼 자녀 관계를 교환 이론으로 살펴보면, 부모는 나이가 들면서 교환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가지고 있던 자원의 가치도 떨어짐으로써 지위와 권력이 낮아지게 된다. 하지만 기혼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자원 내에서 호혜성을 기초로 자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애정을 주고받거나 정서적 관계를 이루어 나간다(Krep, 1977). 특히 오늘날의 젊은 맞벌이 부부들은 여성이 자녀 양육과 가사일을 동시에 해내기가 버겁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자녀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러한 위기 상황들에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부모에게 필요한 조언이나 정신적·정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Ingersoll-Dayton et al., 2001). 반면, 현재의 부모 세대는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이 자연스럽게 길어졌다. 즉, 기혼 자녀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고 부모는 이러한 요구에 응할 수 있는 시간과 신체적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교환 이론의 호혜성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자신이 제공한 자원에 대한 보상이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에 바탕을 둔다(Sabatell & Shehan, 1993; 고선강, 2008). 이러한 보상은 즉각적일 수도 있고, 가까운 미

래나 먼 미래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경제적 자원이전뿐만 아니라 동거, 보살핌,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김영순, 고선강, 2014).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지의 자원이 많을 때 기혼 자녀와의 상호작용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며(전길양, 김태현, 1993), 노부모와 자녀 간의 지지의 제공과 수혜가 공평할 때 부모의 심리적 복지감이 증가한다(전미애, 2005). 한편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자원을 얻으려고 기대하거나 부모에게 가사일이나 양육 등의 도움을 받는 도구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교환된 자원이 쌍방 간에 균형을 이루게 되면 쌍방은 그 교환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Walster, E. H.,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Sprecher & Schwartz, 1994).

기혼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지지가 비슷하거나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는 지지가 더 많을 때 자녀의 부양 부담이 낮아지며, 부모와의 관계가 호혜적이지 못하고, 노부모의 의존을 과도하게 느끼면 갈등이 증가한다는(박인아, 2008) 점은 기혼 자녀와 부모관계가 교환론적 관점이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부모와 성인 자녀는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중심으로 교환관계를 형성하여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부모와 기혼 자녀가 아닌, 장모와 사위의 관계를 교환관계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 그 중 박정윤(1994)은 사위의 사회적 지위가 장모에게 만족을 주며, 장모는 만족에 대한 보상으로 사위에 대한 애착이 높게 나타나므로 장모-사위 관계 역시 상호 호혜적인 교환관계라고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환 이론의 틀 안에서 장모와 사위가 서로 어떤 도움을 어느 정도 주고받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경향이 장모-사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3) 자원 이론

교환 이론과 지적인 근원을 같이 하는 자원 이론은 Foa와 Foa 등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사회적·물질적 자원의 교환을 인간 상호작용의 근본 형태로 파악하며, 교환 가능한 자원, 사회제도, 문화적인 사회규범에 따라 불평등한 자원 교환을 중심으로 사회관계를 설명한다(Foa & Foa, 1975; Foa, Converse, TÖmblom, and Foa, 1993). 가령 정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교환 관계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약자나 노인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교환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환 이론이 보상과 처벌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심리학과 이익과 손실의 경제 원리에 따라 교환을 설명하는 데 치중하여 무엇이 교환되는가에 대한 교환의 내용이 소홀하다고 보고 자원 이론은 교환의 내용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둔다(박종우, 김춘택, 2006).

자원 이론에서 자원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자원이 어떠한 것이라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힘들다. 또한 한 명의 개인이나 한 사회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자원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회에서는 다르게 인식되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교환이 이루어지는 관계의 속성과 자원 자체가 지닌 특성에 주목하면 자원을 매개로 한 교환관계의 특성에 따라 자원의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도(특수성)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보편성), 자원 자체의 속성이 구체적일 수도(구체성) 혹은 상징적일 수도(상징성)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을 서비스, 물품, 금전, 정보, 지위, 애정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Foa & Foa, 1975). 여섯 가지 영역 중 서비스(service)는 상대방이 자신을 위해 일을 해주거나 보살펴 주는지, 혹은 그렇지 않는지 등에 관한 평가, 물품(goods)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유형의 자원을 제공하거

나 훼손하는지 등에 관한 평가이며, 금전(money)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돈을 주거나 혹은 돈을 아껴 쓰는지, 아니면 원하는 돈을 주지 않거나 함부로 돈을 쓰는지 등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정보(information)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주거나 의견을 묻는지 혹은 거짓말이나 잔소리로 괴롭히거나 아예 대화를 피하는지 등에 관한 평가, 지위(status)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자존감이 올라가거나 낮아지는 정도에 관한 평가, 애정(love)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편안하고 친절하게 대하거나 혹은 냉정하게 대하거나 짜증스러워하는 정도에 관한 평가를 말한다.

자원 이론을 한국노인에 적용한 박종우와 김춘택(1999)은 Foa(1975)가 제시한 자원의 범위의 기준인 구체성과 상징성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노인의 자원을 일차적으로 물질과 비물질 자원으로 나누었다. 물질 자원은 구체성이 높고 비물질 자원은 추상성이 높으며, 물질 자원에는 경제적 요인이 포함되며, 비물질 자원에는 무병장수 요인과 한국노인 특성요인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무병장수 요인은 한국노인의 특성요인보다 추상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원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자원을 많이 가진 노인이 자원을 적게 가진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자원을 사회관계에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원천으로 보는 것이다(Dowd, 1980). 박종우와 김춘택(1999)은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생활만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랑, 지위 및 권위, 물질소유, 경제력, 사회적 지원, 건강지각과 신체기능 등의 자원이 결정적인 변인이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특수성이 강한 자원일수록 누가 누구에게 제공하는지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즉, 장모가 사위에게 이전하는, 혹은 사위가 장모에게 이전하는 자원의 방향성이 해당 자원의 가치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회적이거나 부정기적인 관계에서는 자원 교환이 같은 영역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는 형평성의 차원이 다양하며, 형평성에 도달하는 방법이 매우 주관적이고 심리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상대방에게 제공한 것과 동일한 자원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전혀 다른 영역 간의 교환을 시도해 형평성을 달성한다(Klein & White, 1996; Roloff, 1987). 특히 부모-자녀 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상대방에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의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 형평성은 서로 다른 영역의 자원 교환으로 달성될 수 있다.

부모 자녀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자원은 물질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지원까지 포함한다. 근대사회 이후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통해 얻는 것은 주로 양육의 기쁨, 자녀로부터의 애정과 존경, 자신의 영향력 발휘의 기회, 자기 발전 및 성장 등으로 나타난다(Hoffman & Manis, 1979). 전통사회에서 미성년 자녀가 수행해 온 도구적인 기능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모에게 정서적인 충족감을 주는 존재로서의 의미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구성원 간 교환되는 자원에 정서적인 지원을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면 자녀는 여전히 부모에게 중요한 자원의 공급처로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다(김현주, 2005).

본 연구에서도 장모와 사위가 가진 자원을 힘의 원천이자 활동의 원천으로 인식하여 장모와 사위의 자원이전이 둘의 관계와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원을 물품과 금전의 경제적 자원, 애정의 정서적 자원, 정보와 서비스의 도구적 자원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자원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애착 이론

애착이란 어떤 특정인과 접촉하고 가까이 있으려는 성향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 정서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Bowlby가 처음 제안한 이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어 왔다(Bretherton, Ridgeway, & Cassidy, 1990).

Bowlby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영아는 초기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애착 유형을 형성하게 된다. 양육자에게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자신이 사랑 받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무의식적 신념을 형성하며,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회 및 세상에 대한 관점을 발달시킨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고 필요할 때에는 타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지니게 된다. 반면에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자신을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고, 타인을 자신의 요구에 거부적인 존재로 여겨 주위를 탐색하거나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Ainsworth, 1989). 이렇게 생애 초기에 형성된 애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대인관계의 지침이 되는 내적작동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발달시키게 된다. 이 내적작동 모델은 초기 애착 경험이 전 생애를 통해 영향을 주며, 애착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지나 평생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즉, 내적작동 모델을 통해 타인에 대해서는 지지와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지 판단한다.

애착과 자녀 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양육과정에서 자녀의 욕구와 의사소통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자녀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와 높은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심리적인 안녕감이 적절하게 유지되지만 회피적인 애착을 형성한 경우 정서를 알고 의

식하는 정보처리 과정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서경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전효정, 2003). 한편 안정된 애착 아동은 불안정 애착 아동에 비해 또래가 시작하는 상호작용에 대해 더 많이 반응하고, 더 많은 또래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애착이 아동의 학교생활이나 또래관계에도 의미 있는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보고된다. 어머니와의 안정적인 애착관계는 아동이 더 큰 세계로 향할 수 있는 도구적, 애정적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적 능력을 발달시킨다고 할 수 있다(이숙, 정미자, 1995).

이렇게 생애 초기 부모관계에서 형성된 애착과 내적 표상은 아동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이성이나 배우자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조영주와 최해림(2001)의 연구에서는 여대생의 성인애착은 어머니와의 애착과 상관이 있고, 남자 대학생의 성인애착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과 상관이 있으며, 부모로부터의 독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rassard 등(2009)은 커플을 대상으로 성인애착과 관계만족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는데, 여성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이 남성의 관계만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의 애착회피와 애착불안은 지각된 갈등을 매개로 여성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성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인애착이 직·간접적으로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생활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안정애착의 성인들은 결혼친밀감이 높고(Mayweless et al, 1977), 결혼생활에서 더 긍정적으로 행동하며(Diehl, et al, 1998), 결혼과 관련된 문제를 덜 경험한다(Volling et al, 1998). 이희숙(2008)의 연구에서는 애착회피나 애착불안 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결혼에 불만족한다고 제시하였다. 배우자의 회피적 행동은 상대 배우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유도하고 이는 결국 결혼 불만족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Bartholomew, 1990). 한편 애착불안은 기본적으로 사

람과의 관계를 중시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애착 대상이 정당하거나 충분히 사랑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결혼만족도를 떨어뜨린다. 이렇게 많은 연구에서 성인애착이 대인관계 문제(Lopez & Gormley, 2002; Wei, Vogel, Ku, & Zakalik, 2005)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Enn & Cox, 2002; Overbeek et al., 2003)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한편 애착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 중 하나의 흐름은 성인애착과 애인, 배우자와의 의사소통을 포함한 갈등 해결 방식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타인과의 갈등 내용과 대처 방식을 애착과 연결시켜 살펴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애착 기제는 외부적인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더 활성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김광은,2005). 커플 간의 갈등과 애착과의 관계를 연구한 Pietromonaco 외(2004)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안정된 애착의 성인들보다 부부갈등을 새로운 국면으로의 변화나 가능성보다는 두 사람의 애착 관계를 위협하는 것으로 지각하여 이에 대응하는 방식도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도움 추구보다는 회피나 강제적인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분석하였다. Kobak와 Sceery(1988)의 연구를 보면,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인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처행동을 보이지만 불안정 애착인 경우에는 이를 부정하고 회피하는 방법을 더 손쉽게 사용한다고 보고한다. 또 안정된 애착을 유지할 때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아탄력성도 커서 가족에게 일어나는 변화나 갈등상황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오랜 가족 갈등인 고부갈등과 모자 애착에 관한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혼자녀와 부모의 애착관계는 부모와의 접촉을 통해 형성되어 평생동안 지속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관계도 변화를 겪게 된다(2002, 옥선화). 즉,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근접하려는 행동은 감소하고 전화나 편지 등의 상징적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등 애착 행동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혼자녀가 독립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려는 것을 부모가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애착관계를 유지하려고 고집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어머니가 자식들과의 관계만을 고집하거나 부부관계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자녀에게 보상받기 위해 지나치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경우 고부갈등을 겪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데에 죄의식을 느끼며, 이로 인해 부모와의 분리에 어려움을 겪는다(Bowlby, 2009). 그 결과 고부갈등이 깊어질 뿐만 아니라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시은의 연구(1992)에서는 건강한 모자 애착관계가 형성된 기혼 남성의 경우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높고 의존성은 낮게 나타나 심리적 분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부부 간의 친밀성이 높고, 부부 간 우애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안정되고 건강한 모자 애착관계가 유지되면 자아탄력성이 높고 가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만든다고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남편이 원가족과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경우, 결혼 이후 부모에게 적절한 정서적 독립을 이루게 되고 부모 역시 자연스럽게 아들의 애착행동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그 결과 고부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낮고, 건강하고 친밀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사위는 장모와의 관계 역시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장모와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 현명하게 대처하여 잘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위가 부모와 어떠한 애착 관계인지 살펴보고,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장모-사위 관계

1) 장모-사위 관계와 갈등

장모-사위 관계는 고부관계와 더불어 결혼을 통해 형성되는 인척 관계이다. 인척이라 함은 혈족의 혼인 또는 배우자를 매개로 하여 인정되는 친족 관계를 말한다. 성인이 되었을 때 배우자를 통해 처음 만나 친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장모-사위 관계는 친 자모-자녀와의 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일종의 긴장이 존재한다(Bryant, Conger, & Meehan, 2001).

‘사위는 백년손님’, ‘사위 사랑은 장모’ 등의 속담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모-사위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갈등을 내포한 고부관계와 달리 장모-사위 관계가 호의적으로 형성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장모가 사위를 딸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은 여성의 경제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면을 포함하여 삶의 총체적인 행복을 책임지는 존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모는 사위에게는 씨암탉을 잡아 주고, 딸에게는 결혼하면 출가외인(出嫁外人)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전세송, 2013).

현대의 한국 사회는 부계 중심으로 규범화된 친족 유대의 경향이 그대로 남아 있지만 동시에 실제적 필요에 의한 아내의 친족 활용 정도가 높아 점점 ‘양계화’ 혹은 ‘모계화’의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한경혜, 윤성은, 2004). 인구보건복지협회의 2014년 조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외가(8.7%)가 시가(3.9%)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육아 등 경제적 이유로 처가살이를 하는 남성들이 1990년대보다 3배가량 증가했음이 인구주택조사에서 드러났다. 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처가살이 말고 처가 근처에 사는 경우는 더욱이 흔한 현상이다(전북일보, 2014. 09 .22).

부계 중심성이 약화된 원인은 우선 가족 내부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면서 부모들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양육하고 같은 기대를 품기 시작한 것이다. 과거의 어머니들이 아들에게 기대했던 인생의 보상이 오늘날에는 딸에게로 이전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김혜선, 박태영, 2012). 자신이 원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온 어머니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딸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여권신장과 함께 여성의 교육 수준과 취업률이 높아진 사회적인 변화와 맞물려 친정 부모는 딸을 결혼시킨 뒤에도 딸과 가까운 곳에 살면서 자주 접촉하려고 한다.

한경혜와 윤성은의 연구(2004)를 살펴보면, 아내부모와의 동거 비율(1.7%)은 남편부모와의 동거 비율(11.6%)보다 훨씬 낮지만 거주 근접성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남편부모와 서로 다른 시·군에 34.7%, 같은 시·군에 27.2%, 다른 광역시나 도에 22.1%, 같은 동네 및 주변에 9.1%, 같은 읍·면·동에 6.3%에 거주하며, 아내부모와는 서로 다른 시·군에 36.8%, 같은 시군에 24.4%, 다른 광역시나 도에 24.4%, 같은 동네 및 주변에 8.3%, 같은 읍·면·동에 5.7%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부모와 아내부모와의 거주 근접성의 패턴은 상당히 비슷하여 친정부모와 근거리에 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친정 부모가 근거리에 거주하게 되면 경제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딸 가족에게 개입하는 빈도가 높아진다(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전세송, 김수경, 2012). 특히 딸이 취업을 한 경우, 친정부모는 양육과 가사를 도와주면서 딸의 가족생활에 깊이 관여한다(성미애, 2006; 김혜선, 박태영, 2012). 부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은 아내부모(14.8%)보다 남편부모(45.5%)가 훨씬 높으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대상은 아내부모(18.1%)가 남편부모(11.1%)보다 높다는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한경혜, 윤성은, 2004). 가사일이나 간병 등의 생활상의 도움을 의미하는 도구적 지원에서도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은 남편부모(20.6%), 아내부모

(13.4%) 순이었으나, 도움을 받는 대상에서는 아내부모(16.7%), 남편부모(12.1%) 순이었다. 정서적 지원에서는 친구나 직장동료(37.4%)와 아내형제(22.1%)에 이어 아내부모(12.0%), 남편부모(7.4%) 순으로 도움을 제공했지만, 도움을 받는 대상은 친구나 직장동료(41.7%)와 아내형제(22.6%)에 이어 아내부모(12.1%) 순이었다. 즉, 남편부모보다는 아내부모가 부부에게 더 많은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친정부모는 결혼한 딸에게 다양한 지원을 쏟는 만큼 많은 기대를 품게 되는데, 딸의 결혼생활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것이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한다. 특히 친정어머니와 딸 사이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있는 경우, 장모와 사위 간 갈등과 같은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남순현, 한성열, 2002).

한편 사위는 결혼을 할 때 장모를 비롯한 처가 식구와 많은 상호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거나 장모에 대해 가족 개념을 미처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박소영, 2015). 또한 사위는 자신이 처가에서 평생 손님이며, 장모도 친어머니가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잘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한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양육 담당은 여성의 역할이므로 장모의 양육 지원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기도 하다(Johnston & Swanson, 2006). 그래서 사위들은 장모의 지원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도움에 대해 충분히 감사를 표현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기도 하는데(한경혜, 윤성은, 2004), 장모들은 사위의 이러한 태도에 서운한 감정을 느껴서 장모-사위 관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김혜선, 박태영, 2012).

이렇게 현대의 한국 사회에서는 장모와 사위가 자주 만나 도움을 주고받게 되면서 전통 사회적 통념과는 달리 양 세대 간에 스트레스와 갈등 등 새로운 긴장 상태를 겪고 있다. 이때 장모-사위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갈등 문제를 '장모-사위 갈등'이라고 하며, 이러한 갈등은 장모-사위 관계는 물론

부부의 결혼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오혜정, 박경란, 2011).

장모-사위 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됨에 따라 처가와의 교류가 빈번하고 친밀해지면서 장모와 갈등을 겪을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오혜정, 박경란, 2011), 가족체계의 관점에서는 장모와 아내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된 경우에 가족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짐으로써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보았다. 유연지 외(2008)는 장모에게 지나치게 의존적인 아내와 딸의 부부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장모와의 사이에서 사위가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여 사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장모-사위 갈등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생겨나면서 과거와 달리 장모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사위가 늘어나고 있다. 또 장모와의 갈등을 호소하는 사위들이 증가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시가와의 갈등만 있었던 상담 분류 항목에 1999년부터 장모-사위 갈등을 추가하였다. 이것은 장모-사위 갈등을 고부갈등과 함께 심각한 가족문제로 사회가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의 가족관계는 점점 그 중요성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적어짐에 따라 가족관계가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측면도 있다(Turner, Young, & Black, 2006; Wilson, Shuey, & Elder, 2003).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장모와 사위 관계도 과거보다 더 오랫동안 더 긴밀한 영향력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Reczek, Liu, & Umberson, 2010). 특히 씨암탉을 잡아주는 장모와 백년손님인 사위로 이미지화된 과거의 관계와 달리 이혼의 사유가 될 만큼의 갈등이 표출되는 관계가 되어가기 시작하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장모-사위 관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장모-사위와 관련된 연구는 특히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설명하기 위한 변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장모-사위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분석하였

다.

초창기 연구에서 유연지 외(2008)와 정희정(2009)는 부인의 원가족 특성이 남편의 용서갈등을 매개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에서는 부인의 원가족 경계가 불명확할수록, 즉 장모와 아내의 관계가 밀착된 경우 장모가 부부관계에 더 많이 개입하고, 이로 인해 사위는 장모와 처가 가족과의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며, 갈등이 커질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장모를 대상으로 개인적·관계적 변인이 장모-사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전세송, 2013)에서는 장모가 사위와 애정적 결속도와 일치적 결속도, 공유된 가족 정체감이 높을수록, 그리고 모녀분화 수준 및 장모가 지각한 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장모-사위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도 보고되었다. 이은아(2013)의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갈등이 낮을수록, 자기분화는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자기분화보다 장모-사위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장모-사위 관계만족도를 매개효과로 장모지지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장모의 정서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모의 도구적 지지는 결혼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매개변인으로 될 경우 직접적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났다(김혜리, 문정희, 안정신, 2012).

전세송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위의 장모와의 관계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들은 이를 장모의 도움을 받을

<표 II-1> 국내 장모-사위 관계 연구 동향

	연구자 (연구년도)	독립변인	종속변인	연구 대상자
1	박정윤(1994)	• 생활감정 • 생활교류	• 고부 관계 • 장모-사위 관계	며느리 사위
2	우미향(2004)	• 상호교류 • 부양의식	• 장인·장모 부양부담감	사위
3	유연지,조현주, 권정혜(2008)	• 원가족 분화 • 용서 갈등	• 결혼만족도	며느리 사위
4	정희정(2009)	• 원가족 분화 • 용서갈등	• 결혼만족도	며느리 사위
5	오혜정, 박경란 (2011)	• 스트레스 • 대처방법	• 관계의 질	사위
6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2011)	• 장모-사위 관계 변인	•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 부정적 지각	사위
7	김혜선, 박태영 (2012)		• 여성의 장모-사위 관계 경험	아내
8	김혜리, 문정희, 안정신(2012)	• 장모지지 •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 결혼만족도	사위
9	전세송, 김수경 (2012)	• 장모 부양 의식 • 부부관계의 질	•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사위
10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2012)	• 가족지향성	• 장모 부양의식 • 장모 부양부담감	사위
11	김선녀(2013)	• 원가족 규칙 • 부부 의사소통	• 용서갈등	사위
12	이은아(2013)	• 장모-사위 갈등 • 자기분화	• 결혼만족도	사위
13	전세송(2013)	• 장모 개인적 변인 • 장모 관계적 변인	• 장모-사위 관계만족도	장모
14	구현정(2014)		•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 연구	사위
15	박소영(2015)		• 사위가 경험하는 장모- 사위관계	사위

일이 많아지면서 사위가 장모에 대한 고마움이 커진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반면에 사위에 대한 장모의 불만 및 부당한 대우와 이기적 태도는 장모와의 관계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사위의 장인·장모에 대한 부양 의식과 부담감을 연구한 우미향(2004)은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의식은 다소 높고, 부양부담감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아내와 친정 부모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적 변화에 따라 사위도 이전의 고정관념이나 규범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 장인·장모와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오혜정과 박경란(2011)은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유형을 분석하고 또 대처방식과 장모-사위 관계의 질에 관해 연구하였다. 사위는 불편한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인식하였으며, 인지적 이해 대처와 간접적 행동 대처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장모-사위 관계의 스트레스는 대처방식이 중요하므로 사위도 백년손님의 자세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장모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장모-사위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배우자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위의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가 높음을 밝혀냈다(전세송, 김수경, 2012). 원가족의 가족 규칙과 용서갈등을 연구한 김선녀(2013)는 사위가 성역할 규칙을 높게 지각할수록 장모와의 갈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로 진행된 김혜선과 박태영(2012)의 연구에서는 딸·아내인 여성을 대상으로 장모-사위 관계에서 여성의 경험을 조사하여 여성들이 친정어머니와 남편과의 중간 역할을 통해 결혼은 가족관계의 완성이 아닌 성숙의 과정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위 226명을 대상으로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를 연구한 구현정(2014)의 연구에 따르면 장모와 대화

를 나누는 시간이 짧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중 일부인 8.8%만이 대화 부족의 이유를 '장모의 성격이나 장모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갈등이 있다고 대답한 계층은 사회적 관심군을 벗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장모-사위 갈등은 젊은 부부 전반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새롭게 형성되는 결혼 기간이 짧은 소수의 집단에서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분석하였다. 박소영(2015)은 사위의 관점에서 장모-사위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결혼 초기 불편하고 힘든 관계를 경험하지만 시간이 더 경과하면서 장모의 품어주심과 양육 도움, 그리고 사위의 감사한 마음과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을 거치면서 장모를 완전한 가족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렇게 장모-사위 관계 연구는 여러 가지 관련 요인을 찾아내어 연구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장모-사위 간의 갈등이 부부갈등이나 이혼사유가 되는 시점에서 장모-사위 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그 심각성에 비해 양적으로나 주제의 다양성 면에서 매우 부족하며, 갈등의 직접적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행복한 부부의 결혼생활을 위하여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 분석이 필요하다.

3. 장모-사위 갈등 관련 변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단, 장모-사위 갈등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많지 않으므로, 장모-사위의 관계만족도, 부양부담감 또는 부양 스트레스 등도 장모-사위 갈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포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위 관련 변인

사위 본인이 가진 특성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위의 개인적 변인인 사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위와 원가족과의 관계, 사위의 부모 애착, 사위의 결혼만족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위의 나이, 학력, 직업, 수입, 자녀 수, 맞벌이 여부 등의 사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지만 장모-사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포괄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장모-사위의 대화를 연구한 구현정(2014)은 장모와의 대화 부족의 이유를 ‘장모의 성격이나 장모와의 갈등’ 때문이라고 대답한 계층은 나이는 40대 이상, 결혼 기간은 11~15년, 학력은 대졸, 가계 소득은 300~500만 원 정도,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장인과 장모에 대한 일반적인 부양의식과 부양부담감을 살펴본 우미향(2004)의 연구에서는 사위의 연령과 소득에 따라 일반적 부양의식과 부양부담감에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50대 이상인 집단에서 일반적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나 연구자는 연령이 높은 집단이 부모를 모시는데 있어 전통적인 효 의식에 의한 의무감이 크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소득에서는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부양의식은 높고 부양부담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혜정과 박경란(2011)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으로 20대 사위보다는 40대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이 많은 사위들이 장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배경 변인과 장모-사위 관계만족도와 부정적 지각을

살펴본 전세송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자녀수가 1명인 사위보다 3명 이상인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김선녀(2013)의 연구에서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모와의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장모의 도움을 더 많이 받게 되므로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익숙함을 느끼고, 장모에 대한 고마움으로 사위의 관계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위의 일반적인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학력과 수입 이외에 장모와 사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맞벌이 여부를 포함시켜 장모-사위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사위의 원가족과의 관계

부부의 결혼생활과 원가족의 경험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은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그 가족 속의 개인, 그리고 가족 전체가 삼각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원가족 내에서의 역동적인 경험과 가족 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세대 간 전이됨으로써, 자녀의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서는 결혼생활의 만족과 적응, 그리고 갈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Kerr & Bowen, 1988). 이처럼 원가족은 개인의 성장과 성인이 된 후의 관계 맺기와 생활 자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개인과 부부, 가족을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김경자, 2004). 더욱이 우리나라는 핵가족의 형태를 갖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변형된 확대가족 문화 속에서 원가족과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므로 서구 사회보다 원가족이 핵가족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이종원, 2002;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Minuchin(1974)은 분명한 경계를 가진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지지적이고 서로를 잘 돌보고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므로, 가족의 문제나 변화에 용

통성있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분명한 경계를 가진 원가족에서 성장한 부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친밀감과 자율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Becvar & Becvar, 2000). 그러나 원가족과 밀착·분리된 경계를 가진 경우에는 친밀감과 자율성을 경험할 수 없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가족문제와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유숙, 2000). 특히 부모와 결혼한 자녀의 경계가 지나치게 밀착·응집되어 있거나 원가족이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고부갈등이나 장모-사위 갈등과 같은 배우자 가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에 원가족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원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은 배우자 부모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김경자, 2004).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원가족의 가족 규칙과 응서갈등을 연구한 김선녀(2013)는 사위가 성역할 규칙을 높게 지각할수록 장모와의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며 그다음으로 감정 규칙을 높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생활 규칙을 낮게 지각할수록 장모와의 갈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김경자(2004)는 원가족의 경험이 좋을수록 현재의 가족체계기능도 긍정적인 것으로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사위와 원가족과의 관계는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선행연구의 양이 많지 않고, 몇 개의 연구들은 사위의 원가족 경험이나 규칙이 장모-사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위가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과 상관이 있는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3) 사위의 부모 애착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 경험으로 형성된 애착관계의 질이 전 생애에 걸쳐 인간의 행동이나 관계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애착이론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인의 애착을 측정하고 유형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이를 통하여 성인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현재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연인이나 배우자와 형성하는 애착과 관련이 있음을 밝혀왔다(허미선, 2000).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배우자에 대한 애착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대부모에 대한 안정 애착이 부부 애착유형의 안정 애착과 관계되고 대부모에 대한 불안 애착은 부부 애착유형의 불안 애착과 관계됨을 제시한 박의순(1997)의 연구 결과가 이를 지지한다. 김덕일(1996)은 부부의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이 부부의 애착 정도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에 대하여 안정 애착을 형성하였을 때 부부의 애착 정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허미선(2000) 역시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성인의 현재 부부간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여러 연구자들이 부모애착과 결혼만족도, 부부갈등 등과의 직접적인 관계에 관해 연구하였다. 유은희와 박성연(1990)은 결혼 초기에 있는 기혼 자녀의 부모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며, 부모애착이 결혼만족도의 긍정적인 방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진희경(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성인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높은 반면, 부모 모두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성인 집단은 결혼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희(2005)도 애착 정도에 따른 결혼만족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되어 있을수록 부부관계에서 문제해결 의사소통에 만족하며, 배우자 가

족에 대한 불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어머니-아들의 애착관계를 연구한 이정화(2011)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집착하는 과도한 애착은 아들의 부부관계에 부정적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을 초래하거나 고부갈등을 일으키게 한다고 제시하였다. 강차연(1999) 역시 어머니의 자신의 부모에 대한 애착유형이 불안정할수록 부부간의 결혼갈등이 높다고 하였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애착 유형이 부부의 애착 유형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부모애착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결혼적응에 영향력 있는 변인이며 갈등해소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지닌 성인이 결혼한 이후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으며,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거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독립은 부모와의 정서적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적절한 애착 관계를 유지하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이 생겼을 때 이를 잘 해결하는 것이다(이정화, 2011). 반대로 애착이 안정적이지 못해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한 경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부부 갈등을 경험하거나 배우자 가족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도 사위가 친부모와 어떠한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장모와 관계를 맺고, 갈등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결혼만족도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남성의 결혼만족도와 장모-사위 관계가 상관있음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박정운의 연구(1994)에서는 부부간의 불화가 적을수록 장모에 대한 사위의 애착이 높고, 처가일로 부부싸움을 자주할수록 장

모에 대한 사위의 갈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들이 결혼만족도가 낮을수록 장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했으며,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낮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유연지, 조현주, 권정혜, 2008; 정희정, 2009). 김혜리 외(2012)의 연구에서는 사위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두고 장모의 지지 정도와 장모-사위 관계만족도를 각각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부부관계의 질이 장모-사위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사위의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전세송, 김수경, 2012). 즉, 부부간 결혼만족도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과 같은 인척관계 연구에서 관계의 질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며(전세송, 2013), 부부관계는 장모-사위 관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결혼만족도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장모-사위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아내 관련 변인

장모와 사위는 두 사람 간에 직접적인 역동성이 생기기보다 아내와의 관계에 따라 사위가 장모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Willson, Shuey, & Elder, 2003)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사위가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남편에게 부인은 가장 친밀하고 중요한 대상으로 남편의 심리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며, '아내가 귀여우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한다'는 속담처럼 부인과의 관계가 좋으면 장모와 관련된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혼남성들을 대상으로 장모-사위 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박소

영(2015)은 사위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 장모와의 관계가 불편하고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아내는 사위와 장모 사이를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부정적으로 만들기도 한다고 느꼈음을 보고하였다. 전세송과 김수경(2012) 역시 중간 역할을 하는 배우자인 부인의 영향 정도가 높을수록 사위가 느끼는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고부관계에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남편이며, 남편이 고부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수록 아내가 고부갈등을 덜 느낀다는 김재경(2013)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의 결과이기도 하다.

아내와 관련된 여러 변인 중 사위가 지각하는 아내와 원가족과의 관계, 아내와의 비교 우위, 고부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내와 원가족과의 관계

유연지 외(2008)와 정희정(2009)의 연구에서는 부인의 원가족 특성은 남편의 옹서갈등을 매개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부인의 원가족 경계가 불명확할수록, 즉 장모와 아내의 관계가 밀착된 경우 장모가 부부관계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사위는 장모와 처가 가족과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연구자들은 해석하였다. 유영주(2004) 역시 지나치게 밀착된 모녀관계는 사위를 소외시켜 부부의 친밀감과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딸이 친정어머니와의 분화정도가 높을수록 남편과 친정어머니의 관계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김혜선, 박태영, 2012).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일관되게 아내와 원가족의 유대관계가 장모-사위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와 원가족과 지나치게 밀착된 관계인 경우, 부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장모-사위 관계에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들과 딸 모두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지각하였다는 선행연구(남순현, 한순열, 2002)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위가 지각하는 아내와 원가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아내와의 비교 우위

지금까지 사위를 대상으로 아내와의 비교우위가 장모-사위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다. 15명의 사위들을 대상으로 장모-사위에 관해 연구한 박소영(2015)은 장모가 결혼 잘했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면서 여자는 결혼을 잘해야 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사위로 인정하지 않는 듯 할 때 사위들은 서운함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결혼한 이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아내가 자신보다 우위라고 느끼는 남성은 장모가 자신에 대해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갖거나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직업, 학력, 그리고 수입 세 가지 면에서 사위가 아내와의 비교 우위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알아보고,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 고부갈등

장모-사위 갈등이 남편과 배우자 가족와의 갈등인 만큼 부인이 배우자 가족과 어떤 관계이며, 이것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 원천적인 대립관계인 고부갈등은 부부의 갈등 및 부부 불화를 일으키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결혼만

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었다(박성혜, 1994; 이경애, 1984).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부인의 고부갈등,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미한 상관을 보고한 유연지 외(2008)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과 같은 배우자 가족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할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고부 갈등은 경험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가족관계를 초래하여 부부문제도 확대되어 간다고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남성을 대상으로 남성이 지각한 배우자의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의 직접적인 상관을 살펴본 연구는 없다. 특히 고부갈등의 결과로서 장모-사위 갈등을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이에 대해 본 연구자는 남성이 지각한 고부갈등 역시 남성의 결혼만족도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이것은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여 이를 변인에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3) 장모 관련 변인

장모는 장모-사위 갈등의 당사자로서 장모와 관련된 여러 변인이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소영(2015)은 장모와 사위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호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접촉하는 빈도나 경제적 의존 등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특히 처가와와의 접촉 빈도는 장모와의 상호작용의 양과 질에 관련되므로 사위가 처가와 얼마나 가깝게 사는지, 얼마나 자주 처가를 방문하고, 연락을 하는지를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접촉 빈도

20대부터 50대까지 세대별로 가족관계를 연구한 최유정 외(2009)는 과거에 비해 처가 식구와 더 많은 교류를 하는 남성들이 장모에 대해 다른 친족보다 호의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제시하였다. 박소영(2015)의 연구에서는 남성들이 명절이나 가족의 생일, 혹은 아이와 관련된 행사, 집안의 관혼상제 등의 일로 예상보다 장모와 자주 만나게 되고, 이때 장모가 시시콜콜 간섭하는 상황을 겪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장모가 딸 부부와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경우, 서로 상호작용이 많아지므로 장모와 사위가 적절한 경계선을 지킨다면 긍정적인 관계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사위가 스트레스를 느낄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박정윤(1994)은 방문횟수가 많고, 안부 차 방문할 때, 전화통화를 자주 할수록 사위의 장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 생활교류는 높고, 갈등은 낮음을 보고하였다. 오혜정과 박경란(2011)은 적어도 1개월에 1~2번 장모와 만나거나 1주에 1~2번 정도 연락을 취하는 사위들은 그렇지 않은 사위보다 장모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장모와의 관계를 좋게 지각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간혹 만남의 빈도가 높을수록 갈등을 초래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늘어날 수도 있으나 보통은 잦은 만남 속에 장모와 사위가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고 서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며 관계를 조율하는 기회를 많이 갖게 되므로 '불편한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그 결과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제시하였다. 즉, 대부분의 연구들이 사위가 처가와 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갈등이 낮아진다고 분석하였다. 하지만 구현정(2014)이 실시한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위는 평균적으로 장모를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만나고, 한 달에 1회 미만으로 대화를 나누며, 한 번에 5분미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위들

이 일반적으로 장모와 만남이나 연락의 빈도가 낮고, 대화 시간도 매우 짧은 것은 장모와 사위가 서로 정서적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2) 결혼 찬반 여부

직접적으로 결혼 전 처가의 결혼 찬반 여부를 부부의 결혼만족도나 장모-사위 관계와 연결시킨 연구는 없다. 단, 장모가 반대한 결혼 후 장모-사위 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사위의 장모에 대한 애착과 의무감, 생활교류는 높고, 갈등은 낮음을 보고한 박정윤(1994)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 역시 결혼 전의 찬반 여부보다는 결혼 후 장모-사위 관계에 중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전 처가의 결혼 찬반 여부가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4)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자원이전

오늘날의 부모-자녀 관계는 여러 차원의 관계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원들을 주고받게 된다(이윤정, 고선강, 2011). 즉 오늘날의 부모와 자녀는 양방향적인 자원이 교류되는 호혜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 Adams(1968)는 기혼자녀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보다는 재정적인 도움과 선물 등의 형태로 도움을 더 빈번히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여 영역에 따라 세대간 수혜의 방향성에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부모와 자녀 모두 결속도나 심리적 만족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다. 손병돈(1998)은

경제적 자원 이전은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정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일상적 접촉 및 유대관계가 높을수록 자원이전도 높다고 제시하였다. 홍성희와 곽인숙의 연구(2014)에서는 경제적 지원 영역에서 지원 교환 유형에 따라 자녀관계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나 도구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 자녀관계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성인 자녀를 도와주거나 성인 자녀가 노부모를 도와주는 정도가 높을수록 노부모가 지각하는 결속도가 높다고 제시하였고, 자녀에게 지원을 주기만 하는 노부모들보다 자녀와 지원을 주고받는 노부모들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익기, 김정석, 2000).

성인 자녀 역시 노부모에게 자원을 제공하면서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는 떳떳함, 부모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만족감을 느끼며, 이것은 자녀의 삶의 질과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한경혜, 홍진국, 2000). 정서적 지원 교환에 있어서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방향에 속하는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한민아, 한경혜, 2004). 보통의 노부모-성인 자녀처럼 장모-사위 관계에서도 상호 간 도움을 주고받는 자원이전의 유무와 정도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윤(1994)은 정서적 교류가 높을수록 사위가 장모와의 갈등을 적게 경험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을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자원으로 나누지만 하나의 자원이전 변인으로 분석하므로, 선행연구를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사위→장모 자원이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장모→사위 자원이전

부모-자녀 관계는 의무감과 애정을 바탕으로 한 상호적인 관계이고, 이는 일생동안 변화하며 지속성을 가지는데, 부모의 의무적 책임감은 자녀가 독립한 이후 줄어들게 된다(신화용, 조병은, 1997). 이렇게 부모의 의무적 책임감은 줄어드는 반면 세대 간의 지원과 지속성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과거에는 성인 자녀가 있는 부모 세대는 자녀로부터 경제적 자원이전의 수혜자였지만, 현재는 자원 제공자의 역할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 정서적 도움이 많을수록 사위가 장모-사위 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였으며(전세송, 김수경, 전귀연, 2011), 기혼남성이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계만족도 연구에서는 장모의 정서적 지지가 결혼만족에 부분 매개하고, 장모의 도구적 지지는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리, 문정희, 안정신, 2012). 연구자들은 장모의 도구적 지지인 경제, 육아, 가사 등 실질적인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좋아지며 결혼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모한테 도구적 지지를 받지 않더라도 장모와의 관계가 좋으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2) 사위→장모 자원이전

우미향(2004)의 연구에서는 장인의 연령이 젊을수록, 장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인·장모의 경제적인 여건이 좋을수록 장인·장모로부터 도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때 사위의 부양부담감이 낮다고 제시했다. 전세송 외(2011)는 사위가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많을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관계만족도가 높고,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도움이 적을

수록 장모-사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지각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장모는 사위로부터 '도움 받는' 기능적 결속도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관계만족도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전세송, 전귀연,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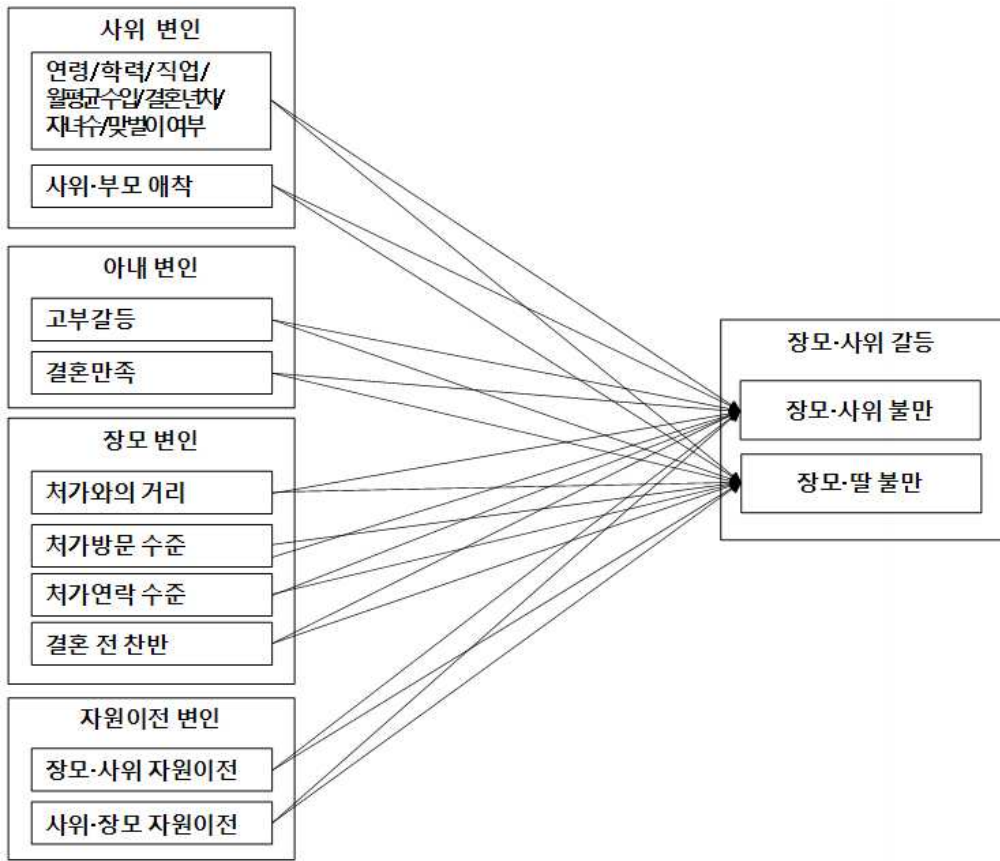
여러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볼 때 장모와 사위와의 관계에서 각자가 가진 자원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도움의 호혜성이 달라지며, 이것이 둘의 관계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수행된 각각의 연구에서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자원 중 장모-사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의 종류는 달랐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도구적·정서적 자원을 모두 포함시켜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사위→장모 자원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장모-사위 갈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사위 관련 변인, 아내 관련 변인, 장모 관련 변인 그리고 장모-사위 자원이전 변인으로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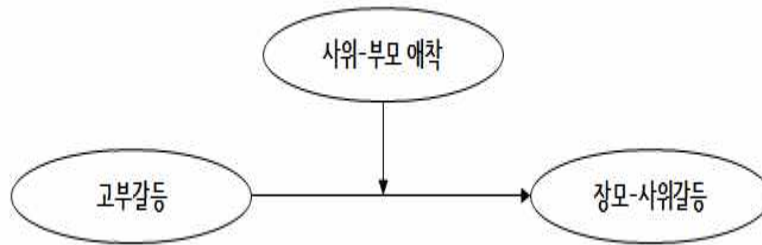
사위 관련 변인 중 사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학력 수준, 수입 수준, 맞벌이 여부를 고려하고, 원가족과의 관계, 부모 애착, 그리고 결혼만족도를 포함한다. 사위와 장모와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아내 관련 변인은 아내와 부모와의 관계, 아내와의 비교 우위, 고부갈등을 고려한다. 장모-사위 갈등의 당사자인 장모 관련 변인으로는 접촉 빈도와 결혼 찬반 여부를 포함하며, 사위-장모 간 자원이전 변인은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사위→장모 자원이전으로 구분하여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사위-부모 애착의 조절효과에 대해서도 규명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그림 III-1] 연구모형 1



[그림 III-2] 연구모형 2

위의 연구모형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장모-사위 갈등은 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사위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아내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장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관련 변인이 장모-사위 갈등에 대한 영향은 어떠한가?

- 사위 변인(사위-부모애착)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자원이전 변인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부모애착은 고부갈등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 부모애착은 고부갈등이 장모-사위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 부모애착은 고부갈등이 장모-딸 불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가?

3. 변수의 측정과 분석방법 및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1) 표본 설계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맞는 조사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남성 중 장모가 생존해 있으며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20세~60대 미만을 표본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표본 400명의 의도적 추출방법(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과 관련된 질문지 문항을 구성하여 전문가 3인의 안면 타당도 검증을 마친 후, 서울 지역의 사위 50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부하였고 설문지의 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였으며 설문이 끝나고 그 자리에서 직접 회수하였다. 조사기간은 2015년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동의서, 인구통계학적 정보, 장모-사위 갈등, 고부갈등, 자원이전 등에 관한 자기보고식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대가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390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2명을 제외한 378개의 표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표지에 인사말과 함께 연구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리고 응답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되어 연구목적만으로 활용됨을 공지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응답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요인별로 제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응답이 쉬운 문항은 먼저 배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반부에 제시하였다. 구성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항

목, 가족관계에 관한 항목, 처가 방문 행태 및 관계에 관한 항목, 장모-사위 갈등 항목, 고부관계 항목, 장모-사위 자원이전 항목, 부부 만족도 항목, 사위-부모 애착 항목 등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신뢰도란 유사한 측정도구 혹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개념을 반복해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안전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 의존가능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개념이다(채서일, 2005).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 측정방법으로 내적일관성 방법을 이용하여 Cronbach's α 값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장모-사위 갈등과, 사위-부모애착, 고부갈등, 장모→사위 자원이전, 사위→장모 자원 이전 순으로 실시하였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및 신뢰도 검증

(1) 장모-사위 갈등 척도 및 신뢰도 검증

사위가 장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유연지(2006)는 김태연(1994)이 개발한 고부간의 갈등 척도 중 정서적 갈등 32문항을 사위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자는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느끼는 갈등 측정하기 위해 유연지(2006) 수정한 용서갈등 척도 중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유연지(2006)는 김태연(1995)의 고부갈등 척도를 사용한 이유로, 이 척도가 사용된 이유는 피험자의 성별에 영향을 적게 받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험자가 배우자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서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장모-사위 갈등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에서 고부간의 정서적 갈등과 비교할 수 있는 척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고 밝혔다.

<표 III-1> 장모-사위 갈등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	신뢰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장모-사위 불만	1. 장모님은 나를 마구 대하신다.	0.846	0.873
	2. 장모님은 나를 남의 집 사위와 비교해 말씀하신다.	0.830	
	3. 장모님은 아내의 잘못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신다.	0.825	
	4. 장모님은 내 이야기를 은연중 무시해버리곤 하신다.	0.849	
장모-딸 불만	5. 아내가 나보다는 장모님에게 더 잘한다.	0.716	0.720
	6. 장모님은 아내가 나에게 지나치게 잘한다고 여기신다.	0.603	
	7. 장모님은 결혼 후 딸이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말씀하신다.	0.573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갈등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그렇다), 4점(매우 그렇다)으로 응답하는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모-사위 갈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에 사용된 장모-사위 불만 4개의 항목과 장모-딸 불만 3개의 항목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2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위 변인 척도 및 신뢰도 검증

①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수입, 결혼 년차, 자녀수, 맞벌이 여부를 사용하였다.

<표 III-2> 사회인구학적 특성 측정도구

변인	구성항목
연령	20~30대 / 30~40대 / 40~50대 / 51세 이상
학력	중학교 졸업 이상 / 고등학교 졸업 / 2~3년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 대학원 졸업
직업	교사 / 관리직 / 사무직 / 전문직 / 기술직 / 생산·기능 직 / 판매/도구적직 / 소규모 자영업 / 단순노무직 / 무직 / 기타
월 평균 수입	200만원 미만 / 200~400만원 / 400~600만원 600~800만원 / 800만 원 이상
결혼 년차	1년 미만 / 5년 미만 / 10년 미만 / 20년 미만 / 30년 미만
자녀수	1명 이상 / 2명 이상 / 3명 이상 / 4명 이상
맞벌이 여부	맞벌이/ 외벌이

② 부모-애착 척도

본 연구에서 사위의 애착척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유은희(1991)가 제작한 애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의 청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유은희(1991)가 한국 정세에 맞게 성인을

위해 수정, 확대한 11문항과 자신이 제작한 문항을 포함하여 총 16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점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문항은 역산하여 채점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위-부모 애착 측정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사위-부모 애착수준을 측정문항은 Armsden & Greenberg(1987)의 부모 및 또래 애착척도 개정판(IPPA: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IPPA-R) 중 또래애착을 제외한 25문항 중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16개의 측정항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애착의 세 가지 차원(의사소통의 질, 상호신뢰감, 소외감)을 측정하였으며 의사소통의 질(6문항)은 부모와의 언어적 의사소통의 정도와 질을 측정하고, 신뢰감(5문항)은 자녀의 정서적 욕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있어서의 안정성을, 소외감(5문항)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유리 또는 부모를 향한 분노를 측정하였다.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애착은 3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인 개념으로 정의하였으며 16개 문항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α 값이 0.897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사위-부모애착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	신뢰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사위 - 부모 애착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하여 준다.	.889	.897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신뢰한다.	.887	
	나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의견이 듣고 싶어진다.	.891	
	장차 나는 내 자녀에게 나의 아버지(어머니) 같은 아버지(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887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889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문제나 갈등을 털어놓고 이야기해봐야 별 소용이 없다.	.892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다른 유형의 어머니였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895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888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별로 이야기 하지 않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단지 피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896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거나 당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알아차린다.	.894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나 주장을 잘 들어준다.	.888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888	
	가끔 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아버지(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낀다.	.893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891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887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 무심하다.	.894		

(3) 아내 변인 척도 및 신뢰도 검증

① 고부간의 갈등 척도

사위가 인식하고 있는 갈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기숙(1985)의 고부갈등 척도 74문항을 김태연(1994)이 54문항으로 재구성한 척도 중 정서적 갈등 5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구성은 정서적 갈등 요인 분석으로 총 5문항이다.

이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매우 그렇다)으로 평점하며, 점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에 사용된 고부갈등 5개의 항목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부갈등 요인 중 문항 3 제거 시 Cronbach's α 값이 0.825에서 0.844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여 요인의 신뢰도를 높인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II-4> 고부갈등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	신뢰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고부갈등	나의 어머니와 아내는 성격차이가 있다.	0.844	0.825
	나의 어머니는 내가 아내 편만 든다고 여기신다.	0.776	
	나의 어머니는 내 아내를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해 말씀하신다.	0.780	
	나의 어머니는 처가 식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신다.	0.764	
	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샘하고 질투하신다.	0.781	

② 결혼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Roach(1975)가 고안한 총 73문항으로 구성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이다. 이후 Bowden(1977)이 48문항으로 재구성한 것을 국내에서 이인수(1986)가 문화적 배경에 맞도록 번안, 수정하였다. 결혼만족도는 척도가 총 6개 하위요인,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자는 이 중에서 3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3개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5점 Likert 척도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으로 평점하며, 5점은 결혼생활에 매우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1점은 결혼생활에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3개의 문항 중 2개의 문항은 긍정문항이고 1개의 문항은 부정문항이어서 역 채점하도록 되어있다.

결혼만족 측정문항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만족 문항 2번 제거 시 Cronbach's α 값이 0.777에서 0.796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제거하여 변수의 신뢰도를 높인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표 III-5> 결혼만족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	신뢰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결혼만족	나는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0.636	0.777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0.796	
	내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0.654	

(4) 장모-사위 자원이전 척도 및 신뢰도 검증

① 장모-사위 자원이전

자원이전 척도란 장모-사위 간에 주고받는 경제적· 도구적· 정서적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김순기(1993)의 정서적· 경제적· 도구적 지지 척도, 송현애(1993)의 부양행동척도· 부양의 호혜성 척도, 우미향(2003)이 장인·장모에게 드리는 도움 척도 및 장인· 장모로부터 받는 도움 척도, 김주희·고선강(2015)의 신혼기 부부의 자원이전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장모-사위 자원이전을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형으로서 각각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도움”으로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후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장모님은 돈을 급하게 써야 할 때 돈을 빌려주시거나 도와주신다’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도구적 도움으로 ‘장모님은 손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도와주신다’, ‘장모님은 내 자녀들의 식사준비나 간식먹이기를 도와주신다’ 등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 요인은 “장모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으로 ‘장모님은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신다’, ‘장모님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검증결과 3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장모-사위 자원이전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	신뢰도	
		Alpha of Item Deleted	Cronbach's α
경제적 자원이전	신혼 집 마련에 있어서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	0.830	0.849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후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0.810	
	장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 등)을 구입할 때 사 주시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	0.809	
	장모님은 돈을 급하게 써야 할 때 돈을 빌려주시거나 도와주신다.	0.815	
	장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비 지불을 도와주신다.	0.828	
도구적 자원이전	장모님은 손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도와 주신다.	0.848	0.852
	장모님은 집안일을 도와주시거나, 김장, 밑반찬, 간식 등을 해주신다.	0.788	
	장모님은 장을 담거나 김장할 때 오셔서 도와주신다.	0.814	
	장모님은 내 자녀들의 식사준비나 간식먹이기를 도와주신다.	0.795	
정서적 자원이전	장모님은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신다.	0.846	0.853
	장모님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잘 감싸주신다.	0.814	
	장모님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	0.834	
	장모님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주신다.	0.798	
	장모님은 나를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주신다.	0.817	

② 사위-장모 자원이전

사위-장모 자원이전은 사위가 장모에게 제공한 경제적·도구적·정서적 도움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앞서 제시된 장모-사위 자원이전 측정항목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으로 추출되었고 전체 1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Likert 형으로서 각각 1~5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신뢰도 검증결과 3개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0.6 이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사위-장모 자원이전 신뢰도 검증 결과

구분	문항요약	신뢰도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s α
경제적 자원이전	나는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	0.733	0.777
	나는 장모님의 여행비용이나 행사비용(명절, 제사, 생신, 김장 등)을 드린다.	0.709	
	나는 장모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 등)을 구입하려 할 때 사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도와드린다.	0.699	
	나는 장모님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빌려드리거나 도와드린다.	0.752	
도구적 자원이전	나는 장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경우 등 외출 시 함께 가 드린다.	0.830	0.832
	나는 장모님의 집안 일(집안 보수, 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을 도와드린다.	0.701	
	나는 장모님이 손님을 치르시거나 일손이 부족 할 때 도와드린다.	0.765	
정서적 자원이전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장모님에게 솔직히 털어 놓고 의논드린다.	0.854	0.883
	나는 장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말상대가 되어 드린다.	0.859	
	나는 장모님을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 드린다.	0.857	
	나는 집안일을 결정할 때 장모님과 상의한다.	0.862	
	나는 장모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드린다.	0.855	

3) 통계분석 방법

본 연구는 직접 설문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문항의 재부호화 과정과 오류검토 작업을 거쳐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모형의 각 변인들을 측정하는 척도의 타당성을 베리맥스를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요인순화 과정을 거친 측정항목을 대상으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구하고,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하나의 통합적인 구조 안에서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변인, 사위의 개인적 변인, 부인 관련 변인, 장모 관련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별 평균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OLS 분석을 통해 장모-사위간 자원이전, 고부갈등,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다섯째,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를 사위-부모애착이 조절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회귀분석 실시 전,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예측변인과 준거변인을 평균중심화(Centering)한 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표본의 특성 및 기술통계 분석결과

1) 사위 관련 특성

본 연구는 서울, 경기도 소재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으로 배우자 및 장모가 생존해 있는 기혼남성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22명을 제외한 378명의 자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은 35세 미만이 75명(19.8%), 40세 미만이 89명(23.5%), 45세 미만이 65명(17.2%), 50세 미만이 69명(18.3%), 51세 이상이 80명(21.2%)로 나타났다. 월평균수입에서는 2~4백만 원대가 208명(55.17%)으로 가장 많았으며, 4~6백만 원대가 101명(26.79%), 6~8백만 원대가 34명(9.02%), 2백만 원 미만과 8백만 원 이상이 각각 17명(4.51%)로 나타났다. 직업은 사무직이 107명(28.3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판매/도구직, 전문직, 소규모 자영업, 관리직, 기술직, 생산/기능직, 기타, 무직, 교사, 단순노무직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10년 미만이 182명(48.15%)로 가장 많았으며, 11~20년이 106명(28.04%), 21~30년이 63명(16.67%), 31년 이상이 27명(7.14%)로 나타났다. 맞벌이 유무는 맞벌이부부가 216명(57.14%)으로 맞벌이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부(162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는 2명의 자녀가 184명(48.81%)로 가장 많았으며, 한명의 자녀가 113명(29.97%), 3명의 자녀가 66명(17.51%), 4명 이상의 자녀가 14명(3.71%)로 각각 나타났다.

<표 IV-1> 사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N = 378)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나이	35세 미만	75	19.8
	36세 - 40세 미만	89	23.5
	40세 - 45세 미만	65	17.2
	45세 - 50세 미만	69	18.3
	51세 이상	80	21.2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	1.86
	고등학교 졸업	80	21.22
	2~3년제 대학 졸업	45	11.94
	4년제 대학 졸업	207	54.91
	대학원 졸업(재학 포함)	38	10.08
가계소득	200만원 미만	17	4.51
	200~400만원	208	55.17
	400~600만원	101	26.79
	600~800만원	34	9.02
	800만 원 이상	17	4.51
직업	교사	9	2.38
	관리직	24	6.35
	사무직	107	28.31
	전문직	40	10.58
	기술직	21	5.56
	생산/기능직	20	5.29
	판매/서비스직	94	24.87
	소규모 자영업	27	7.14
	단순노무직	8	2.12
	무직	10	2.65
기타	18	4.76	
결혼년수	1~10년	182	48.15
	11~20년	106	28.04
	21~30년	63	16.67
	31년 이상	27	7.14
맞벌이 여부	하고 있다.	216	57.14
	하고 있지 않다.	162	42.86
자녀 수	1명	113	29.97
	2명	184	48.81
	3명	66	17.51
	4명 이상	14	3.71

2) 아내 관련 특성

연구대상자의 아내와의 비교 우위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IV-2>과 같다. 직업에 대한 비교를 보면 남편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208명(57.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둘 다 비슷한 115명(32.03%), 아내 우위는 36명(10.03%)으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둘 다 비슷이 186명(49.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편 우위(138명), 아내 우위(51명) 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비교에서는 남편우위가 다른 비교에 비해 월등히 많은 243명(67.50%)로 나타났으며, 둘 다 비슷(84명), 아내 우위(3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구대상의 남편-아내 간 비교 우위 특성 (N = 378)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	누적백분율 (%)
직업 비교	남편 우위	208	57.94	57.94
	아내 우위	36	10.03	67.97
	둘 다 비슷	115	32.03	100.00
학력 비교	남편 우위	138	36.80	36.80
	아내 우위	51	13.60	50.40
	둘 다 비슷	186	49.60	100.00
수입 비교	남편 우위	243	67.50	67.50
	아내 우위	33	9.17	76.67
	둘 다 비슷	84	23.33	100.00
전반적 비교	남편 우위	177	47.33	47.33
	아내 우위	34	9.09	56.42
	둘 다 비슷	163	43.58	100.00

마지막으로 전반적 비교에서는 남편우위가 177명(47.33%)으로 둘 다 비슷(163명)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우위는 34명(9.09%)로 제

일 적게 나타났다.

3) 장모 관련 특성

장모 관련 변인을 살펴보면, 결혼반대 유무 조사에서는 찬성하였다가 224명(59.4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저 그러셨다가 89명(23.61%), 반대하였다가 64명(16.98%)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 연구대상의 장모관련 변인 특성 (N = 378)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처가 방문 횟수	1년에 1~3회	140	37.04
	1년에 4~12회	109	28.84
	1달에 1회	54	14.29
	1달에 2~3회	25	6.61
	1주일에 1회	20	5.29
	1주일에 2~3회	5	1.32
	매일	6	1.59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12	3.17
	기타	7	1.85
처가 연락 횟수	1년에 1~3회	114	30.32
	1년에 4~12회	98	26.06
	1달에 1회	57	15.16
	1달에 2~3회	45	11.97
	1주일에 1회	22	5.85
	1주일에 2~3회	10	2.66
	매일	5	1.33
	기타	25	6.65
결혼반대 유무	찬성하셨다.	224	59.42
	반대하셨다.	64	16.98
	그저 그러셨다.	89	23.61

처가 방문 횟수의 경우 1년에 1~3회가 140명(37.04%)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년에 4~12회(109명)가 그 다음이었으며, 1달에 1회(54명), 1달에 2~3회(25명), 1주일에 1회(20명),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가 연락 횟수는 1년에 1~3회가 114명(30.32%)으로 가장 많았으며, 1년에 4~12회(98명), 1달에 1회(57명), 1달에 2~3회(4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구성개념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결과를 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모-사위 불만은 평균 1.7387(SD=0.5642), 장모-딸 불만은 평균 2.1105(SD=0.5825), 고부갈등은 1.862(SD=0.5492), 장모-사위 자원이전은 경제, 도구적, 정서가 각각 2.7152(SD=0.8245), 3.2036(SD=0.8644), 3.3403(SD=0.6996)으로 나타났다. 사위-장모 자원이전은 경제, 도구적, 정서가 각각 3.3803(SD=0.6996), 3.0889(SD=0.8699), 2.9385(SD=0.7621)이며 결혼만족은 3.7640(SD=0.7676)이었다. 사위-부모 애착은 3.4414 (SD=0.5779)으로 나타났다.

<표 IV-4>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변인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모-사위 갈등	장모-사위 불만	376	1.00	3.25	1.7387	0.5642
	장모-딸 불만	374	1.00	4.00	2.1105	0.5825
사위-부모 애착		305	1.00	5.00	3.4414	0.5779
고부갈등		355	1.00	4.00	1.8662	0.5492
결혼만족		375	1.00	5.00	3.7640	0.7676
장모-사위 자원이전	경제이전	375	1.00	4.80	2.7152	0.8245
	도구적이전	375	1.00	5.00	3.2036	0.8644
	정서이전	372	1.00	5.00	3.3403	0.6996
사위-장모 자원이전	경제이전	378	1.00	5.00	3.3803	0.6968
	도구적이전	375	1.00	5.00	3.0889	0.8699
	정서이전	374	1.00	5.00	2.9385	0.7621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2.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결혼만족도, 장모-사위 갈등, 고부갈등, 장모-사위 간 자원이전 및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구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장모-사위 불만은 장모-딸 불만, 고부갈등, 장모-사위 경제이전과는 정(+)¹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에서 장모-사위 정서이전, 결혼만족, 사위-부모애착과는 부(-)²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장모-딸 불만은 고부갈등, 사위-장모 도구적이전과는 정(+)³의 상관관계, 결혼만족, 사위-부모애착과는 부(-)⁴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고부갈등은 장모-사위 경제이전과는 정(+)⁵의 관계가 나타

났으나 장모-사위 정서적 이전, 결혼만족, 사위-부모애착과는 부(-)의 관계를 보였다. 결혼만족은 장모-사위 갈등, 고부갈등과는 부(-)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장모-사위 도구적 이전, 장모-사이 정서이전, 사위-장모 경제, 도구적, 정서이전, 사위-부모애착과는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표 IV-5> 상관관계 분석결과

(N = 378)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고부갈등	장모-사위 경제이전	장모-사위 서비스 이전	장모-사위 정서적 이전	사위-장모 경제이전	사위-장모 서비스 이전	사위-장모 정서이전	결혼만족	사위-부모 애착
장모-사위 불만	1	.529**	.625**	.325**	.079	-.297**	-.060	.092	.082	-.411**	-.256**
장모-딸 불만	.529**	1	.490**	.099	.069	-.096	.008	.113*	.076	-.229**	-.255**
고부갈등	.625**	.490**	1	.236**	.099	-.220**	.033	-.004	.019	-.327**	-.324**
장모-사위 경제이전	.325**	.099	.236**	1	.465**	.182**	.190**	.324**	.397**	.038	-0.02
장모-사위 서비스이전	.079	.069	.099	.465**	1	.351**	.295**	.367**	.365**	.104*	.119*
장모-사위 정서적이전	-.297**	-.096	-.220**	.182**	.351**	1	.407**	.429**	.523**	.421**	.275**
사위-장모 경제이전	-.060	.008	.033	.190**	.295**	.407**	1	.516**	.414**	.205**	.199**
사위-장모 서비스이전	.092	.113*	-.004	.324**	.367**	.429**	.516**	1	.619**	.200**	.162**
사위-장모 정서이전	.082	.076	.019	.397**	.365**	.523**	.414**	.619**	1	.144**	.189**
결혼 만족	-.411**	-.229**	-.327**	.038	.104*	.421**	.205**	.200**	.144**	1	.287**
사위-부모 애착	-.270**	-.154**	-.364**	-.126*	.053	.260**	.232**	.157**	.181**	.315**	1
N	304	302	293	304	303	302	305	303	303	304	305

**p=<0.01, *p=<0.05

3. 분석결과

1)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검증

(1) 사위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검증

① 사위의 연령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사위의 연령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위의 연령대는 35세 이하, 36세-40세 이하, 41세-45세 이하, 46-50세 이하, 51세 이상으로 나누었다.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모-사위 갈등은 연령대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6> 연령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35세 이하 (A)	40세 이하 (B)	45세 이하 (C)	50세 이하 (D)	51세 이상 (E)	사후 검정 (F값)
장모-사위 불만	1.687	1.7667	1.6966	1.8423	1.7138	1.6955	- (0.864)
N		75	89	65	69	78	
장모-딸 불만	0.706	2.1556	2.0189	2.1231	2.1225	2.1496	- (0.554)
N		75	88	65	68	78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② 사위의 학력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사위의 학력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

을 실시하였다. 사위의 학력 수준은 고졸이하, 2-3년제 대학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재학 이상의 4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모-사위 갈등 중 장모-사위 불만은 고졸 이하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만 99% 유의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모-딸 불만에 의한 갈등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위의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장모-사위 간의 갈등이 높아지며, 사위학력이 높을 경우 장모-사위 간의 갈등이 낮은 특징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장모의 딸에 대한 기대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위의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연결될 뿐 아니라 소득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모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위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애착을 보이는 것이다(박정운, 1994). 또한 사위의 학력수준에 따른 장모-딸 불만에 의한 갈등은 차이가 없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학력 간 차이는 고졸이하와 대학원 재학이상의 집단에서만 차이가 유의미하여 모든 학력 구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학력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고졸 이하 (A)	2-3년제 졸업 (B)	4년제 졸업 (C)	대학원 재학이상 (D)	사후 검정 (F값)
장모-사위 불만	2.700**	1.8866	1.8722	1.6517	1.7105	A>D*** (4.594)
N		86	45	206	38	
장모-딸 불만	0.694	2.2326	2.0667	2.0572	2.1754	- (2.084)
N		86	45	204	38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③ 사위의 직업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사위의 직업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위의 직업은 전문직, 사무·관리직, 기술·생산직, 판매서비스직과 기타로 구분하였다.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모-사위 갈등은 직업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8> 직업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전문직 (A)	사무 관리직 (B)	기술 생산직 (C)	판매 서비스 (D)	기타 (E)	사후 검정 (F값)
장모-사위 불만	2.613**	1.8878	1.7038	1.8293	1.6792	1.7569	- (1.596)
N		49	130	41	120	36	
장모-딸 불만	1.531	2.1088	2.1576	2.1789	2.0812	1.9630	- (0.005)
N		49	129	41	119	36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④ 사위의 월평균수입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사위의 월평균 수입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위의 월평균 수입 수준은 400만원 미만, 400-600만원, 600만원 초과 3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사위의 수입 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위의 경제

적 상태인 수입 수준과 장모-사위 갈등의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사위의 수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 장모-사위 갈등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 2011)의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표 IV-9> 월평균 수입 수준에 따른 장모-사이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400만원 미만	400-600만 원	600만원 초과	사후검정 (F값)
장모-사위 불만	1.248	1.7355	1.7550	1.7304	- (0.050)
N		224	100	51	
장모-딸 불만	1.152	2.0538	2.2054	2.1830	- (2.788)
N		223	199	51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⑤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녀수는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1명 (A)	2명 (B)	3명 이상 (C)	사후검정 (t값)
장모-사위 불만	0.609	1.6974	1.7227	1.8354	- (1.545)
N		114	183	79	
장모-딸 불만	0.078	2.1121	2.0916	2.1519	- (0.295)
N		113	182	79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⑥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맞벌이 부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두 집단 간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집단 간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맞벌이		사후검정 (t값)
	예	아니오	
장모-사위 불만	1.7326	1.1453	- (-0.210)
N	215	160	
장모-딸 불만	2.1277	2.0818	- (0.741)
N	215	159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은 친정어머니로부터 자녀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대리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가사의 도움도 받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경우 손자녀 양육이라는 실제적 지원과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사위가 느끼는 장모-사위 갈등을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여부와 장모사위 간의 갈등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게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변화된 장모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최규현, 2007). 즉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이상을 실현해가는 것을 장모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내 관련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검증

① 사위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사위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와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2개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부갈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사위 불만을 증가시키며 설명력은 38.9%이다. 또한 고부갈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딸 불만을 증가시키며 설명력은 23.8%이다. 즉 고부갈등은 사위-장모의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12>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고부갈등	0.650*** (0.043)	0.528*** (0.050)
수정된 R ²	0.389	0.238
F값	225.837***	110.709***
N	354	352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고부갈등이 평균치보다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장모사위갈등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중 유연지(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고부관계는 가족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가족 관계를 초래하고 결국 부부문제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고부갈등이나 장모-사위 갈등이나 배우자 겪는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② 사위가 지각하는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사위가 지각하는 결혼만족과 장모-사위와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2개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사위 불만을 감소시키며 설명력은 16.6%이다. 또한 결혼만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딸 불만을 감소시키며 설명력은 5%이다. 즉 결혼만족은 사위-장모의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13>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결혼만족	-0.303*** (0.035)	-0.174*** (0.038)
수정된 R ²	0.166	0.050
F값	75.505***	20.434***
N	374	372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이러한 결과는 박정윤(1994), 김혜리(2011), 전세송(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며, 결혼만족도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장모사위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장모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검증

① 처가와와의 거리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처가와와의 거리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를 비교하기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처가와와의 거리는 도보, 승용차 1시간 이내, 승용차 1-3시간 이내, 승용차 3-5시간 이내, 승용차 5시간 이상의 5개 집단으로 나누었다. 사후 검정을 위해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검정결과 장모-사위 갈등 중 장모-사위 불만 요인에 대해서는 도보와 승용차로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가 승용차 3-5시간 거리에 있는 집단보다 90% 수준에서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장모-딸 불만 요인에 대해서는 승용차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경우와 승용차 1-3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집단이 승용차 5시간 초과외의 거리에 있는 집단보다 90% 수

준에서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승용차로 5시간 이상의 거리에 처가가 있는 경우 사위는 장모가 딸에 대해 불만이 더 많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처가와 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장모는 자신의 딸과 손자녀와의 교환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장모-사위 갈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Krep, 1977). 특히 흥미로운 점은 장모-사위 불만은 승용차 3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반면에 장모-딸 불만은 승용차 5시간 이상의 거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점이다. 이는 처가와 의 거리에 있어서 장모가 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위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사위들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표 IV-14> 처가와 의 거리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도보 (A)	승용차 1시간 이내(B)	승용차 1-3시간 (C)	승용차 3-5시간 (D)	승용차 5시간 (E)	사후 검정 (F값)
장모-사위 불만	1.361	1.6597	1.6622	1.7375	1.8622	1.8333	D>A,B (2.067)*
N		36	131	80	78	48	
장모-딸 불만	0.602	2.1481	2.0362	2.0667	2.1624	2.3056	E >B,C (2.207)*
N		36	129	80	78	48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② 처가방문 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처가방문 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처가 방문 정도는 1년에 1-3회, 1년에 4-12회, 1달에 1번, 1달에

2-3회의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사후 검정을 위해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년 2-3회 방문하는 그룹과 년 4-12회 방문하는 그룹이 월 1회 방문, 월 2회 이상 방문하는 그룹에 비해 장모-사위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장모-딸 불만은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15> 처가 방문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처가방문 정도				사후검정 (F값)
		2-3회/년 (A)	4-12회/년 (B)	1회/월 (C)	2회 이상/월 (D)	
장모-사위 불만	0.129	1.8112	1.8333	1.5324	1.6167	A,B>C,D (5.547)***
N		139	108	54	75	
장모-딸 불만	2.972**	2.1319	2.1589	2.0123	2.0721	-
N		139	107	54	74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③ 처가연락 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처가연락 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처가 연락 정도는 1년에 1-3회, 1년에 4-12회, 1달에 1번, 1달에 2-3회, 주 1회 이상의 5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사후 검정을 위해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표 IV-16> 처가 연락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처가연락 정도					사후검정 (F값)
		1-3회/년 (A)	4-12회/년 (B)	1회/월 (C)	2-3회/월 (D)	1회 이상 /주 (E)	
장모-사위 불만	1.420	1.8969	1.7985	1.5545	1.5944	1.6331	A>E, B >C,D (5.496) ^{***}
N		114	98	55	45	62	
장모-딸 불만	2.201*	2.1725	2.0918	2.1006	2.0815	2.0591	-
N		114	98	53	45	62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분석결과 년 1-3회 연락하는 집단이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집단에 비해 장모-사위 불만이 높게 나타났으며, 년 4-12회 연락하는 집단이 월 1회, 월 2-3회 연락하는 집단에 비해 장모-사위 불만이 높게 나타났다.

사위장모교류와 관련된 연구결과는 예측한 대로 결과가 검증되었으며, 이는 박정윤(1994)의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장모사위 관계가 원만해야 방문횟수가 많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고, 사위가 장모에 대한 애착감도 높아지게 될 것이며, 오혜정(2011)의 연구에서처럼 방문횟수가 너무 많고, 전화통화 역시 너무 잦아지면 오히려 사위에게는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 반면 구현정(2014)의 연구에서는 이처럼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방문횟수와 전화통화의 기준을 한 달에 1회전후로 한 것이 두 집단 간 유의미성을 확보한 것이라 사료된다.

④ 결혼 찬반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 비교

처가의 결혼 반대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혼 반대여부는 찬성, 반대, 중립의 3개의 집단으로 구

분하였다. 사후 검정을 위해 Levene 검정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테스트하였으며, 동질성이 확보된 경우에는 Duncan, 분산의 동질성이 기각된 경우에는 Dunnett T3 검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찬성 그룹이 반대 혹은 중립 그룹에 비해 장모-사위 불만이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반대 그룹의 경우 찬성 혹은 중립 그룹에 비해 장모-딸 불만이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IV-17> 결혼 찬반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차이 비교

	Levene 통계량	결혼찬반 여부			사후검정 (F값)
		찬성 (A)	반대 (B)	중립 (C)	
장모-사위 불만	6.654***	1.5890	2.0469	1.8933	B,C>A***
N		222	64	89	
장모-딸 불만	0.027	2.0212	2.3802	2.1386	A,C>B (9.985)***
N		220	64	89	

- 장모-사위 갈등은 4점 척도

***p<0.01, **p<0.05, *p<0.10

결혼찬반에 따른 장모-사위의 갈등을 살펴보면 이주리, 박현남(2012)에 나타난 것처럼 장인-장모의 수용거부가 남편의 결혼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처럼 장모의 사위에 대한 수용-거부로 인해 갈등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변인에 따른 장모-사위 갈등 영향 검증

(1) 사위-부모애착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

① 사위-부모애착과 장모-사위 불만

사위와 사위의 부모와의 애착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위-부모애착과 장모-사위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8> 사위-부모 애착과 장모-사위 불만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사위-부모애착	-0.266*** (0.055)
수정된 R ²	0.071
F값	23.065***
N	291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위-부모애착은 장모-사위 불만과 99%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사위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좋으면 장모-사위 불만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위가 원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좋으면 장모-사위 불만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모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받으면서 성장한 아들이 사위가 되어서도 새로 가족이 된 장모와의 갈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Feeney, Noller & Callan, 1994).

② 사위-부모애착과 장모-딸 불만

사위와 사위의 부모와의 애착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위-부모애착과 장모-사위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 사위-부모 애착과 장모-딸 불만 관계

항목	장모-딸 불만
사위-부모애착	-0.272*** (0.06)
수정된 R ²	0.067
F값	20.537***
N	289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위-부모애착은 장모-딸 불만과 99% 수준에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사위가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좋으면 장모-딸 불만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위-부모와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분석의 결과는 가족구성원은 감정적으로 연결된 정서적 유기체이므로 부모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온 사위의 경우 또 다른 가족하위체계 내에서도 이해하고 애정을 주고받는 순기능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Krep, 1977).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성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현재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애착이 좋은 사위는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긍정적 지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모-사위 갈등에 사위-부모 애착이 전반

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Feeney, Noller & Callan, 1994).

(2) 아내 변인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

① 사위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사위가 지각하는 고부갈등과 장모-사위와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2개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부갈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사위 불만을 증가시키며 설명력은 38.9%이다. 또한 고부갈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딸 불만을 증가시키며 설명력은 23.8%이다. 즉 고부갈등은 사위-장모의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20>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고부갈등	0.650*** (0.043)	0.528*** (0.050)
수정된 R ²	0.389	0.238
F값	225.837***	110.709***
N	354	352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고부갈등이 평균치보다 높은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장모사위갈등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중 유연지(2005)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통적 한국사회에서 고부관계는 가족구성원 간의 부정적인 가족 관계를 초래하고 결국 부부문제로 확대된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고부갈등

이나 장모-사위 갈등이나 배우자 겪는 가족과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맥을 같이한다 할 수 있다

② 사위가 지각하는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사위가 지각하는 결혼만족과 장모-사위와의 갈등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은 2개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만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사위 불만을 감소시키며 설명력은 16.6%이다. 또한 결혼만족은 99% 유의수준에서 장모-딸 불만을 감소시키며 설명력은 5%이다. 즉 결혼만족은 사위-장모의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IV-21> 결혼만족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결혼만족	-0.303*** (0.035)	-0.174*** (0.038)
수정된 R ²	0.166	0.050
F값	75.505***	20.434***
N	374	372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이러한 결과는 박정윤(1994), 김혜리(2011), 전세송(201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며, 결혼만족도가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상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장모사위의 갈등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장모-사위간 자원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

① 장모->사위 자원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

장모로부터 사위로의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위-부모애착, 고부갈등, 결혼만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모-사위 불만 모형은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모-딸 불만모형은 9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전부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빈-왓슨 값도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모로부터 사위로의 경제 자원이전은 장모-사위 불만과 정(+)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정서적 자원이전은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장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장모-사위 불만은 증가하는 반면에 장모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장모-사위 불만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모-사위 불만 모형은 52.9%의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에 장모-딸 불만과 관련해서는 장모로부터의 자원이전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모로부터의 자원이전을 받는 것이 사위가 지각하는 장모가 딸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는데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관계갈등에 관한 선행의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진 내용은 부모-성인자녀의 관계는 상호호혜적인 형태를 보인다는 것과 부모가 성인자녀를 도와주거나 성인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결속도가 높다진다는 것이다(최정혜, 1992; 김정석, 김익기, 2000). 김현주(2005)의 연구에서도 상대방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받으면 관계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서적 교류가 높을수록 사위는 장모와의 갈등이 적다고 알려져 있다(김혜리, 2011).

<표 IV-22>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장모->사위 경제 자원이전	0.174*** (0.032)	-0.050 (0.043)
장모->사위 도구 자원이전	0.009 (0.031)	0.009 (0.042)
장모->사위 정서 자원이전	-0.144*** (0.038)	0.064 (0.051)
사위-부모애착	-0.007 (0.043)	-0.127** (0.058)
고부갈등	0.454*** (0.047)	0.468*** (0.064)
결혼만족	-0.166*** (0.033)	-0.101** (0.045)
수정된 R ²	0.529	0.254
F값	54.461***	17.164***
N	287	286
Durbin-Watson	2.134	1.993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본 연구에서도 장모의 사위에의 정서적 자원이전은 장모-사위 갈등을 99% 수준에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모로부터의 경제 자원이전은 갈등과 정(+)의 관계를 나타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전세송, 2011). 이는 장모-사위 자원이전에 있어서 사위의 인식 현황을 보여 준다. 장모로부터의 경제적 자원이전은 3가지 측면에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사위가 인식하는 장모의 태도이다. 장모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면서 사위에게 향후 부양의 의무를 지우거나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등의 태도를 보일 경우에 사위-장모 갈등은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아내의 태도이다. 아내의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 아내가 보다 우세하게 느껴지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인지한 남편은 장모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위의 태도이다. 실제로 장모와 아내의 태도가 경제적 지원과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장모와 갈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② 사위->장모 자원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미치는 영향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위-장모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에 대해 OLS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사위-부모애착, 고부갈등, 결혼만족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장모-사위 불만 모형과 장모-딸 불만 모형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팽창지수(VIF)는 전부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빈-왓슨 값도 1.920으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경제 자원이전은 장모-사위 불만과 부(-)의 관계가 나타난 반면에 도구 자원이전은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장모에게 경제 자원을 많이 이전할수록 장모-사위 불만은 감소하는 반면에 장모에게 도구 자원을 많이 이전할수록 장모-사위 불만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모-사위 불만 모형은 49.1%의 설명력을 보였다. 장모-딸 불만 모형에서는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도구 자원이전이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갈등 관계

항목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
사위->장모 경제 자원이전	-0.118*** (0.040)	-0.041 (0.052)
사위->장모 도구 자원이전	0.136*** (0.038)	0.165*** (0.050)
사위->장모 정서 자원이전	0.022 (0.043)	-0.055 (0.055)
사위-부모애착	-0.032 (0.045)	-0.108* (0.059)
고부갈등	0.541*** (0.048)	0.462*** (0.062)
결혼만족	-0.203*** (0.033)	-0.088** (0.043)
수정된 R ²	0.491	0.268
F값	47.126***	18.408***
N	288	286
Durbin-Watson	2.075	1.920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본 분석결과에 의하면 사위가 장모에게 경제적 자원을 지원할 때 장모-사위 갈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위가 장모에 대해 부양의식이 높은 경우 장모와 친밀감이 형성되기 때문이다(우미향, 2004). 즉 사위들은 장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아내의 원가족 중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장모와의 관계에서 애착과 친밀감을 형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앞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사위들은 장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을 자녀역할의 도리가 아니고 오히려, 도와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전통적 가부장제적 사고로 인해, 장모가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 부부관계에 깊이 개입하려는 우려에 대해 갈등이 유발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상반되게 사위가 장모에게 도구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장모-사위 갈등을 높임을 의미한다. 이는 장모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모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 장모사위의 갈등이 증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사위가 전통적 가족제도에 몰입되어 아내의 부모를 자신의 부모와 구분 짓는 양가감정과 반양성평등적인 사고를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3)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과의 관계에서 사위-부모애착의 조절효과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를 사위의 부모애착이 조절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계층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단계별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text{제 1단계 : } Y = \alpha + \beta_1 X$$

$$\text{제 2단계 : } Y = \alpha + \beta_1 X + \beta_2 Z$$

$$\text{제 3단계 : } Y = \alpha + \beta_1 X + \beta_2 Z + \beta_3 XZ$$

Y는 장모-사위 갈등, X는 고부갈등, Z는 사위-부모 애착을 의미한다. XZ는 고부갈등과 사위-부모 애착의 상호작용항이며 $\beta_1, \beta_2, \beta_3$ 는 각각 X, Y, Z의 회귀계수이다. 이때 상호작용항은 평균중심화하여 사용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고려하여 공차한계(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에의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에서 사위-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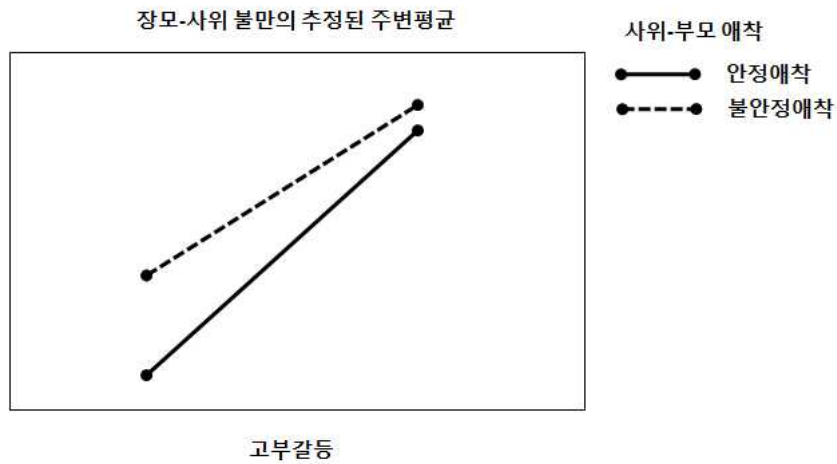
하였다. 검증결과, 사위-부모애착은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위-부모애착은 장모-사위 불만에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호작용항만 99%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순수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표 IV-24>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	변수	장모-사위 불만	F	R ²	△R ²
1	고부갈등 (A)	0.644*** (0.047)	189.832***	0.393	-
2	고부갈등 (A)	0.617*** (0.049)	97.017***	0.397	0.006
	사위-부모애착 (B)	-0.081* (0.047)			
3	고부갈등 (A)	0.607*** (0.049)	68.546***	0.410	0.015
	사위-부모애착 (B)	-0.045 (0.048)			
	A*B	0.222*** (0.082)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이러한 고부갈등과 사위-부모애착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사위-부모애착의 평균 이하 집단과 평균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정의하고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님과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은 장모-사위 불만이 낮을 경우에는 갈등이 낮은 반면에 불만이 높은 경우에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V-1]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관계에의 사위-부모애착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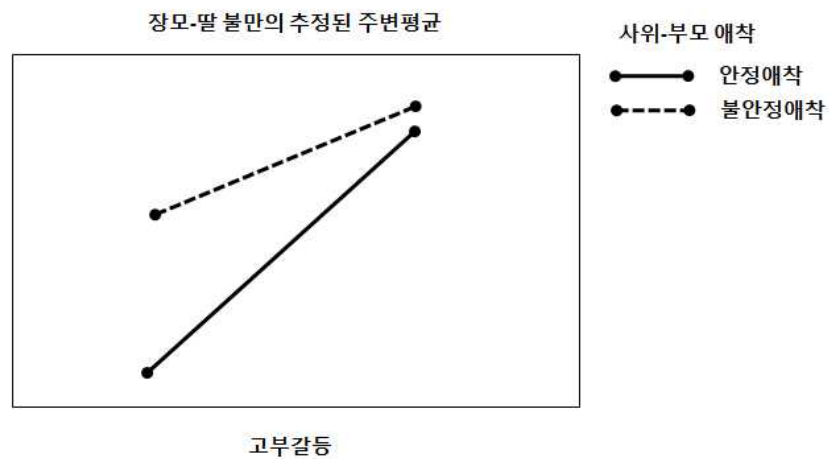
(2)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서 사위-부모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사위-부모애착은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위-부모 애착은 장모-딸 불만에 주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상호작용항만 99%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나 순수조절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고부갈등과 사위-부모애착의 상호작용효과를 해석하기 위해 사위-부모애착의 평균 이하 집단과 평균 이상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각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으로 정의하고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모님과 애착이 안정적인 집단은 장모-딸 불만이 낮을 경우에는 갈등이 낮은 반면에 불만이 높은 경우에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5>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결과

모형	변수	장모-딸 불만	F	R ²	△R ²
1	고부갈등 (A)	0.531*** (0.057)	87.510***	0.230	-
2	고부갈등 (A)	0.490*** (0.060)	46.577***	0.239	0.012
	사위-부모애착 (B)	-0.121** (0.057)			
3	고부갈등 (A)	0.481*** (0.060)	32.702***	0.247	0.010
	사위-부모애착 (B)	-0.089 (0.059)			
	A*B	0.199** (0.100)			

***p<0.01, **p<0.05, *p<0.10, ()는 표준오차



[그림 IV-2]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 관계에의 사위-부모애착의 상호작용효과

조절효과 검증결과,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해 사위-부모애착이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부갈등으로 인한 장모-사위 갈등은 사위-부모 애착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다. 장모-사위 갈등이 낮을 경우에는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에 더 낮게 만들고, 장모-사위 갈등이 증가되면 높은 부모 애착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크게 증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체계의 다양한 위계성을 다시 보여준다(Minuchin, 1974). 사위와 사위의 원부모와의 하위체계가 사위와 장모와의 하위체계와 위계성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모-사위 갈등의 해소는 사위의 원부모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표 IV-26> 분석결과 요약

구분	연구문제	검증 결과	
차이 검증	사위 변인	사위 연령대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없음
		사위 연령대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사위 학력수준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있음 (99% 수준)
		사위 학력수준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사위 직업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없음
		사위 직업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사위 월평균 수입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없음
		사위 월평균 수입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자녀수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없음
		자녀수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없음
		맞벌이 여부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아내 변인	고부갈등 -> 장모-사위 불만	증가(+), 99% 수준
		고부갈등 -> 장모-딸 불만	증가(+), 99% 수준
		결혼만족 -> 장모-사위 불만	감소(-), 99% 수준
		결혼만족 -> 장모-딸 불만	감소(-), 99% 수준
	장모 변인	처가와외 거리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있음 (90% 수준)
		처가와외 거리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있음 (90% 수준)
		처가 방문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있음 (99% 수준)
		처가 방문정도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처가 연락정도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있음 (99% 수준)
처가 연락정도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없음	
결혼 찬반 여부에 따른 장모-사위 불만		차이 있음 (99% 수준)	
결혼 찬반 여부에 따른 장모-딸 불만		차이 있음 (99% 수준)	
영향력 검증	부모애착 변인	사위-부모 애착 -> 장모-사위 불만	감소(-), 99% 수준
		사위-부모 애착 -> 장모-딸 불만	감소(-), 99% 수준
	장모->사위 자원 이전 변인	장모->사위 경제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증가(+), 99% 수준
		장모->사위 도구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영향 없음
		장모->사위 정서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감소(-), 99% 수준
		장모->사위 경제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영향 없음
		장모->사위 도구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영향 없음
		장모->사위 정서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감소(-), 95% 수준
	사위->장모 자원 이전 변인	사위->장모 경제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감소(-), 99% 수준
		사위->장모 도구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증가(+), 99% 수준
		사위->장모 정서 자원이전과 장모-사위 불만	영향 없음
		사위->장모 경제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영향 없음
		사위->장모 도구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증가(+), 99% 수준
		사위->장모 정서 자원이전과 장모-딸 불만	영향 없음
조절 효과 검증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순수조절 효과	
	고부갈등과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한 사위-부모애착 조절효과 검증결과	순수조절 효과	

V. 결론

1. 결론 및 논의

1) 결과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에 관한 것으로 갈등 정도의 차이가 나는 요인을 살펴보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 사이에서 사위-부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장모-사위 갈등의 차이를 사위 변인과 장모 변인으로 구분하고, 영향 요인은 사위 부모애착, 아내 변인, 자원이전 변인 구분하였다. 또한 아내 변인 중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의 관계에 있어서 사위-부모애착이 조절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수립하였다.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개발하였으며 1차 사전 검증 후 수정·보완하여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 중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기혼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표본은 의도적 샘플링을 통해 표집 하였으며 390부가 회수되었다. 이중 불성실한 응답지 12부를 제외하고 378개를 분석하였다. 모형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위-장모 간 갈등 차이에 있어서 사위 변인 중 사위의 학력과 장모 변인 중 처가와와의 거리, 처가 방문정도, 처가 연락정도, 결혼 찬반 경험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사위 변인을 살펴보면, 사위의 학력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고졸이하 집단과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만이 99%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내었다. 이는 장모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위에 대해 보다 애착을 느끼기 때문으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

이 한다(박정윤, 1994). 그러나 고졸, 2-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2-3년제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재학이상 간에도 차이가 없어 사위의 학력에 따른 사위-장모 갈등 차이의 해석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 맞벌이 여부는 장모-사위 갈등에 중요한 차이를 내지 못하였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당연시 되고 전문직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독립성을 가지는 딸의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장모의 인식변화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최규현, 2007).

장모 변인으로는 처가와 거리, 처가 방문정도, 처가 연락정도, 결혼 찬반 경험이 각각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가와 거리는 장모-사위 불만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3시간, 장모-딸 불만에 대해서는 승용차로 5시간이 기준으로 나타나 사위에게 보다 엄격한 만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처가 방문정도와 연락빈도 모두 장모-사위 불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개의 변인 모두 장모-사위 불만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위일수록 장모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장모-딸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친정 엄마와의 빈번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사위들이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장모-사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방문과 연락 빈도가 높아지고 애착감도 높아진다는 연구와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된다(박정윤, 1994). 결혼 전에 찬성을 경험한 사위는 반대나 중립을 경험한 사위에 비해 장모-사위 불만을 낮게 인식하고, 결혼 전에 반대를 경험한 사위는 장모-딸 불만을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결혼 전에 처가의 찬성은 사위에게 장모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처가의 중립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사위 자신은 아니지만 아내인 딸에게는 장모가 부정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결혼 전 처가의 수용태도에 의해 장모-사위

갈등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이주리, 박현남, 2012).

영향 관계에서는 사위-부모애착, 고부갈등, 결혼 만족이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자원이전 변인은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위-부모애착이 높을수록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을 모두 99%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위-부모애착이 장모-사위 갈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은, 가족구성원 속에서 감정적으로 연결된 정서적 유기체로 부모와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해 온 사위의 경우 또 다른 가족하위체계 내에서도 이해하고 애정을 주고 받는 순기능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여준다(Krep, 1977).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성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의사소통을 시도하였을 것이고 그들의 현재 결혼 상태와 상관없이 배우자를 좀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애착이 좋은 사위는 배우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것이며 배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긍정적 지각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장모-사위 갈등에 사위-부모 애착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Feeney, Noller & Callan, 1994).

고부갈등과 결혼만족의 경우는 모두 99% 수준에서 장모-사위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고부갈등을 살펴보면, 시어머니와 아내사이의 갈등은 남편인 사위와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에게 영향을 미쳐 사위의 인식과 장모의 인식과 태도에 변화에 영향을 미쳐 결국 장모-사위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유연지, 2005). 이는 가족 체계의 다양한 위계성을 보여준다(Minuchin, 1974). 특히 부부 하위체계와 부모 하위체계가 위계성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갈등은 단절된 문제가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일방 혹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가

족체계를 구성하는 전체의 노력이 필요함이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결혼만족의 경우에도 장모-사위 갈등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가 만족할수록 사위는 장모가 자신과 아내에 대해 불만이 낮을 것으로 인식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도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가족 체계의 다양한 위계성을 보여준다. 남편에게 만족한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인 장모에게 사위의 장점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고, 자신의 딸의 만족 원인이 사위에게 있음을 지각한 장모는 사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보임으로써 장모-사위 갈등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장모-사위 자원이전은 장모로부터 사위로의 자원이전과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자원이전으로 구분하여 검증한 결과, 장모-사위 갈등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모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은 장모-사위 갈등 중 장모-사위 불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사위는 장모가 자신에게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져야하는 사위의 부담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되며,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장모-딸 불만에는 영향이 없는 점에서도 이는 추정된다. 경제적 지원과 다르게 정서적 지원은 사위-장모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모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인식을 받은 사위일수록 갈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세송(2011)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반면에 장모로부터 도구적 지원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자녀 양육과 결혼생활 지원에 있어서 장모의 관여에 대해 사위들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자원이전은 다소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위는 장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수록 장모-사위 갈등이 줄어든다고 인식하였으며 도구적 지원을 할수록 장모-사

위 갈등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사위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제공함으로써 장모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중받는다라는 인식을 스스로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구 제공의 경우에는 장모-사위 갈등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정서적 이전이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김현주(2005)와 전세송(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의 평균값이 2.94점으로 보통이하로 나타나 점을 볼 때, 아직까지 사위로부터 장모로의 정서적 이전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채집된 표본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고부갈등에 대해 사위-부모 애착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검증결과, 고부갈등과 장모-사위 불만, 장모-딸 불만의 관계에 대해 사위-부모애착이 모두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고부갈등으로 인한 장모-사위 갈등은 사위-부모 애착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이다. 장모-사위 갈등이 낮을 경우에는 부모애착이 높은 경우에 더 낮게 만들고, 장모-사위 갈등이 증가되면 높은 부모 애착으로 인해 갈등이 더욱 크게 증가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체계의 다양한 위계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Minuchin, 1974). 사위와 사위의 원부모와의 하위체계가 사위와 장모와의 하위체계와 위계성을 가지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장모-사위 갈등의 해소는 사위의 원부모의 노력도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장모-사위 갈등 관계를 가족체계 이론, 부모애착 이론, 교환 이론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한 점이다. 본 연구는 가족을 하나의 정서적인 체계

로 가정하면서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서 사위-장모 갈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특히 장모-사위 갈등을 사위의 관점을 채택하고 사위를 둘러싼 구성원들을 장모와 사위 당사자 뿐 아니라 아내와 원부모까지 확장하여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장모-사위 갈등은 당사자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호 영향관계로 파악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사된다. 특히 사위 부모의 역할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장모-사위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사위 부모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둘째, 장모-사위 갈등을 사위에 관한 불만과 딸에 관한 불만으로 세분화한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장모-사위 갈등을 하나의 단일 차원으로 설정하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장모-사위 불만과 장모-딸 불만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모-사위 갈등을 단일차원으로 설정할 경우에 해석에 편리성은 높으나 가족체계 속에서 각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다양한 하위 체계를 가진 가족체계 속에서 사위와 장모의 갈등은 사위 뿐 아니라 딸에 대한 불만이 사위에게 투영되기 때문이다. 즉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성별에 상관없이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양육하고 교육시킨 장모는 딸에게 거는 기대가 과거보다 높을 뿐 아니라 손자녀 양육이나 살림지원이 일반화되면서 그 만큼 다양한 지원을 기대하는데 비해 딸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신을 서운하게 할 경우에 딸에 대한 불만이 사위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장모-사위 갈등을 사위에 대한 불만과 딸에 대한 불만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추정을 가능케 하였다.

셋째, 장모-사위 갈등에 있어서 사위-부모 애착의 역할을 규명한 점이다. 부모와 안정된 애착이 형성된 성인은 결혼 이후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간다(이정화, 2011).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이탈이 아니라 원부모와의 적절한 애착관계를 유지하면서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을 포함한 새로운 하위가족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도 사위-부모애착이 장모-사위 갈등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고부갈등과 상호작용을 통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는 장모-사위 갈등에 관한 연구 시 사위-부모애착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처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자원이전에 있어서 자원 간 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실증한 점이다. 기존의 선행연구는 상호 자원이전이 많을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모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은 사위-장모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위로부터 도구적 지원도 사위-장모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조건적인 교환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자원이전과 관련하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며, 장모-사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방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배려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의미하며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과 부모애착이론,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장모-사위 갈등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서울·경기 지역의 사위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전체 사위들을 대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 및 경기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화 정도가 높기 때문에 손자녀 양육

및 처가와와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의 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나, 장모와 사위를 함께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장모-사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위의 관점 뿐 아니라 장모의 관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처가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마지막으로 장모-사위 자원이전이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 점이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성인자녀의 상호 호혜적인 자원이전은 결속감을 높이고 관계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김익기, 2000; 김현주 2005; 최정혜, 199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장모가 제공하는 정서적 자원은 갈등을 줄이고 경제적 지원은 갈등을 높이며, 사위가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은 갈등을 줄이고, 도구적 지원은 갈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모-사위 자원이전과 관련한 연구 중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2011)의 연구에서는 장모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장모에게 주는 정서적 지원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장모로부터의 경제적 도움, 도구적 도움, 장모에게 제공하는 도구적 도움 등도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장모-사위 자원이전은 보다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강차연(1999). 어머니 애착유형과 결혼갈등, 자녀양육행동 및 아동행동문제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선강(2008). 치매부모에 대한 성인자녀의 자원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209-229.
- 구자경(2000).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지각하는 고부간의 갈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현정(2014). 장모-사위 대화의 실태 연구: 사위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6, 205-232.
- 국민일보. 2014. 04. 25. 新모계사회.
- 권정혜, 채규만(2006). **심리학자들이 쓴 행복한 결혼의 심리학**. 서울: 집문당.
- 김경신(1993). 가족학의 이론적 관점과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1(1), 137-151.
- 김경자(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기덕, 손병돈(1995). 1982~92년간 근로자가구의 소득분배 변화 추세: 소득원천별, 사회보장수혜, 사적이전, 조세부담. **사회복지연구**, 6, 91-115.
- 김덕일(1996). 애착유형에 따른 부부간의 사랑유형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두섭, 박경숙, 이세용(2000). 중년층과 노부모의 세대관계와 중년층의 노후부양관. **한국인구학**, 23(1), 55-89.
- 김선녀(2013). 기혼남성이 지각하는 원가족 규칙과 부부의사소통이 옹서갈등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순, 고선강(2014). 중년기 부모와 기혼 자녀 간 상호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도구적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2), 143-162.

- 김원배(2010).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활동이론과 자원 이론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유숙(2000).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8(1), 113-130.
- 김익기, 김정석(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 20(2), 155-168.
- 김재경(2013).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남편의 대처방식이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석, 김익기(2000). 세대간 지원교환의 형태와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한국노년학회**, 20(2), 155-168.
- 김주희, 고선강 (2015).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 간의 자원이전과 출산의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27-49.
- 김창대(2009). **애착-인간애착행동에 대한 과학적 탐구**. 서울: 나남
- 김혜리, 문정희, 안정신(2012). 기혼남성이 지각하는 장모지지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장모-사위관계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7(2), 45-58.
- 김현주(2005). 어머니와 자여간 자원교환과 관계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10(4), 525-553.
- 김혜선, 박태영(2012). 용서(장모-사위)관계에서 여성들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3), 547-571.
- 김태연(1995). 고부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이 며느리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남순현, 한성열(2002). 가족분화수준, 가족관계의 질 및 친밀감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8(2), 33-49.
- 매일경제신문, 2014. 02. 26. '슈퍼 갑' 장모, 시댁보다 자녀 양육 2배↑ 이혼상

담도 ↑.

매일경제 Citylife, 2010. 10. 9. 신 고부갈등 장서갈등, 처가갈등으로 이혼하는 사람들.

박병석(1995).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부부, 부모자녀, 고부체계간의 가족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7, 177-188.

박성혜(1994). 며느리가 지각한 고부갈등과 며느리의 결혼만족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소영(2015). 사위가 경험하는 장서관계: 근거이론적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4), 165-187.

박의순(1997). 애착과정으로 본 한국부부의 사랑 : 대부모 애착, 부부 애착과 부부 사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인아(2008). 성인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 부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정윤(1994). 생활감정과 생활교류를 중심으로 한 고부관계와 장모-사위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종우, 김춘택(1999). 대구시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9(3), 21-33.

박종우, 김춘택(2006). 동성마을 노인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2), 244-248.

박찬미, 서병숙 (1987). 도시주부의 결혼만족도와 이혼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 145-162.

배선희, 김순옥(2001). 기혼남성의 고부관계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51-66.

서병숙, 장선주(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 아들동거노인과 딸동거노인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서영희(2005). 부모의 애착 및 자아분화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성미애(2006).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 손병돈(1999). 사적소득이전의 빈곤완화 효과. **한국사회복지학회지**, 39, 157-179.
- 신화용, 조병은(1997).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본 노부모부양과 재산상속의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125-136.
- 오혜정, 박경란(2011).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가 지각하는 스트레스, 대처방법과 관계의 질.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093-1107.
- 옥선화, 정민자(2002). **결혼과 가족**. 서울: 도서출판 하우.
- 우미향(2004). 사위의 장인·장모 부양부담감 연구 : 부모 부양의식 및 상호교류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연지(2006).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연지, 조현주, 권정혜(2008). 부부의 원가족 특성과 고부·옹서 갈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3(4), 433-451.
- 유영주(2004). **새로운 가족학**. 서울: 신정.
- 유영주, 김순옥, 김경신(2013).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유은희, 박성연(1990)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유형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1), 139-158.
- 이경애(1984). 고부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성희, 한은주(1998). 기혼남성의 아버지 역할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숙, 정미자(1995). 아동의 또래 수용도 및 관련변인. **대한가정학회지**, 102, 103-112.

- 이시은(1992). 한국 기혼 남성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관한 일 연구: 20, 30 대 기혼 남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여봉(2011). 부양지원과 세대 갈등: 딸과 친정부모 그리고 며느리와 시부모. **가족과 문화**, 23(1), 41-76.
- 이여봉, 김현주, 이선이(2012). 어머니와 자녀 간 자원교환의 호혜성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25(1), 39-76.
- 이윤정, 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 자녀 간 자원이전 :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6), 137-151.
- 이은아(2013). 장모-사위 갈등, 자기분화가 사위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정화(2011). 어머니-아들 애착 관계가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기독교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종원(2002). 부부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주리, 박현남(2012).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와 부부의 결혼안정성. **다문화콘텐츠연구**, 13, 105-122.
- 인구보건복지협회(2014). 2014년도 1차 저출산 인식 설문.
- 이현(2010). 고부갈등이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비난의 매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희숙(2008). 성인애착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 보살핌, 성적 친밀감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전길양, 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 딸 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부양기대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인학**, 13(1), 17-38.
- 전미애(2005). 노인의 주관적 안녕감과 사회적 지지 교환의 관계.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북일보. 2014. 9. 22. 급증하는 처가살이.
- 전길양, 김태현(1993). 노모와 성인딸 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부양기대요인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13(1), 17-38.
-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2011). 장모-사위 간 관계 변인이 사위의 관계 만족도 및 부정적 지각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7), 123-133.
- 전세송, 김수경(2012). 장모 부양의식과 부부관계의 질이 장모-사위 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0(3), 69-81.
- 전세송, 김수경, 전귀연(2012). 사위의 가족지향성이 장모 부양의식 및 부양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7(4), 137-152.
- 전세송(2013). 장모의 개인적·관계적 변인이 장모-사위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영우(2004). **언어예절과 인간관계: 현대사회의 화법**. 서울: 역락.
- 전효정(2003). 어머니 -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 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조영주, 최해림(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3(2), 71-91.
- 진희경(1998). 부모에 대한 애착과 성역할정체감 및 결혼만족도의 상관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혜승(1999). 어머니 자신의 부모 애착 및 양육행동과 자녀 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 옥선화(2008). **가족관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정희정(2009). 원가족 분화와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고부·옹서갈등을 매개변인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규련(2007). **가족관계론**. 서울: 공동체.
- 최미경(2000). 부모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문집**, 16, 461-476.
- 최옥자(2006).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애착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효일(1998). 고부 갈등 완화를 위한 탐색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 64-73.
- 통계청(2011). 인구주택 총조사.
- 한경혜,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27(2), 177-203.
- 한경혜, 홍진국(2000). 세대간 사회적 지원의 교환과 노인의 심리적 복지. **가족과 문화**, 12(2), 55-80.
- 한민아, 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 유형과 성인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3-152.
- 황수민, 방희정, 신지은(2010). 애착과 대인관계: 남자 대학생의 부모애착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15(1), 67-86.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29-141.
- 허미선(2000). 부모의 대부모 애착 유형과 부부애착유형 및 자녀의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성희, 광인숙(2014).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1), 69-91.
- MBC 뉴스. 2014. 09. 08. '명절증후군' 가족관계 균열 부른다, 처가와의 갈등

커져.

- Adams, B. N. (1968). *Kinship in Urban setting*. Markham Publishing.
- Ainsworth, M. D. S.(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rchbold, P. G.(1983). Impact og Parent-caring on Women. *Family Relations, 32*(1), 39-45.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ecvar, D. S., & Becvar, R. J. (2000).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Needham Heights. MA: Pearson Education.
- Bengtson, Vern L., Elisabeth O. Burgess, and Tonya M. Parrott. (1997). "Theory, explanation, and a third generation of theoretical development in social gerontology."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2*(2), S72-S88.
- Boss, P. G., Doherty, W. J., LaRossa, R., Schumm, W. R., Steinmetz, S. K. (1993).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s: A contextual approach*. New York, NY: Plenum Press.
- Brassard, A., Lussier, Y., & Shaver, P. R. (2009). Attachment, conflict, and couple satisfaction: *Test of a mediational dyadic model*. *Family Relations, 58*, 634-646.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 Bryant, C., Conger, R. D., and Meehan, J.(2001). The influence of in-laws on change in marital succes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3), 614-626.
- Bowlby, John.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1958): 350-373.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Family science*. California: Brooks, Cole.
- Burr, W. R., Day, R. D., & Bahr, K. S. (1993). 새로 보는 가족관계학(남영주 외 역). 서울: 하우.
- Diehl, M., Elnick, A. B., Bourbeau, L. S., & Labouvie-Vief, G.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Their relations to family context and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656-1669.
- Dowd, James J. (1980). Stratification among the aged. Brooks Cole Co. 38.
- Enn, M. W., & Cox, B. (2002). The nature and assessment of perfectionism: A critical analysis. In G. L. Fleet & P. L. Hewitt (Eds.).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 Perlman (Eds.),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 (pp. 269-308). London;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 M.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Foa, U. G. & Foa, E. B. (1975). *Resource Theory of Social Exchange*.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Foa, U. G., Converse, J. Jr., Tömbloom, K. Y., & Foa, E. B. (1993). *Resource Theory: Explorations and Applications*. New York: Academic Press.
- Gross, I. H., Crandall, E. W. & Knoll, M. M. (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4th Ed.), Englewood Cliff, N. J.; Prentice-Hall, Inc.
- Hazan, C., & Shaver, P.(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ffman, L. W. & J. D. Manis. (1979). The Value of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Fert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583-596.
- Johnston, D. & Swanson, D. (2006). Constructing the "good mother": The experience of mothering ideologies by work status. *Sex Roles*, 54, 509-519.
- Ingersoll-Dayton, B., Neal, M. B., & Hammer, L. B.(2001). Aging Parents Helping Adult Children: The Experience of the Sandwiched Generation. *Family Relations*, 50, 262-271.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Company.
- Klein, D. M., & White, J. M.(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 Oaks, CA: Sage.

- Kobak, R. R., & Scerey, A.(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rep, J. M. (1977). Intergenerational transfers and the bureaucracy. In E. Shnas, & M. B. Sussman(Eds.) *Family bureaucracy and the elderly*,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Landis, J. T., & Landis, M. T.(1963).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4th ed* Engle 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Lopez, F. G., & Gormley, B. (2002). Stability and change in adult attachment style over the first-year college transition: Relations to self-confidence, coping, and distress patter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9*, 355-364.
- Mayweless, O., Sharabany, R., & Sagi, A. (1997). Attachment concerns of mothers as manifested in parental, spousal, and friendship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4*, 255-269.
- Minuchin, S. (1974). *Family Kaleidoscop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Overbeek, G., Vollebergh, W., Engels, R. C. M. E., & Meeus, W. (2003). Parental attachment and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emotional disturbance during late adolesc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1), 28-39.
- Pauline G. Boss., & William J. Doherty (2003). 가족학 이론: 관점과 쟁점(유계숙 외 역). 서울: 하우.
- Reczek, C., Liu, H. & Umberson, D.(2010). Just the Two of Us? How Parents Influence Adult Children's Marital Q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5), 1205-1219.
- Roach. A. J., Frazier, L. P., & Brow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6, 271-282.
- Rohner, R. P., & Veneziano, R. A. (2001). The importance of father love: History and contemporary evidenc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5(4), 382.
- Rollins. B., & Feldman, H. (1970).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20-28.
- Roloff, M. E. (1987). Communication and Reciprocity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In M. E. Roloff and G. R. Miller(eds.), *Interpersonal Processes: New direction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 Rook, K.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Personality and Psychology*, 46, 1097-1108.
-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NY: Aldine de Gruyter.
- Sabatelli, R. M., & Shehan, C. L.(1993). Exchange and Resource Theories P. G. Boss et al.(eds).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 : A Contextual Approach(385-411). NY : PlenumPress.
- Satir, V. (1972). *People 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Scharlach, A. E. (1994). Caregiving and Employment: Competing or Complementary Roles? *The Gerontologist*, 34(3), 378-385.
- Sprecher, S., & Schwartz, P. (1994). Equity and balance in the exchange of contributions in close relationships. In Entitlement and the affectional bond. Springer US.
- Turner, M., Young, C., and Black, K.(2006). Daughters-in-law and

- mothers-in-law seeking their place within the family: A qualitative study of differing viewpoints. *Family Relations*, 55(5), 588-600.
- Veneziano, R. A. (2003). The importance of paternal warmth. *Cross-cultural research*, 37(3), 265-281.
- Volling, B. L., & Nataro, P. C. & Larsen, J. J. (1998). Adult attachment styles: Relations with emotional well-being, marriage, and parenting. *Family Relations*, 47, 355-367.
- Vosler, N. R. (1989). A systems model for child protective servic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25(10), 20-28.
- Walster, E. H., Walster, G. W., & Berscheid, E. (1978). *Equity: Theory and research*. Allyn & Bacon.
- Wei, M., Vogel, D. L., Ku, T. Y., & Zakalik, R. A. (2005). Adult attachment, affect regulation, negative mood, and interpersonal problems: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al reactivity and emotional cutoff.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14-24.
- Willson, A. E., Shuey, K. M. & Elder G. H. Jr.(2003).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to aging parents and in-la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5(4), 1055-1072.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ed Variables in Mother-in-law-son-in-law Conflict

Won Jungeu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Recently our national society has been evaluated as moving from a patriarchal society to a patri-matriarchal one. In order to explain this paradigm change, a discussion about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conflicts has emerged. Son-in-laws were traditionally treated as perpetual guests with refined manners by mother-in-laws. However, as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conflicts have more often become a reason for divorce, specific and practical research into this relationship dynamic is necessary. This research tries to define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conflicts against the background of family relations theory, parental attachment theory, and exchange theory. From here, this

research locates four factors affecting the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the son-in-law, wife, mother-in-law, and resource movement. More specifically, each is also divided into multiple subfactors. For the son-in-law, the subfactors are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dual income, and parental attachment. The wife's subfactors are "mother-in-law-daughter-in-law" conflict and marital satisfaction. The mother-in-law is subdivided into physical distance between the son-in-law's and mother-in-law's households, visitation frequency, contact frequency, and mother-in-law's agreement to the marriage. Resource movement is subdivided into two opposite directions: movement from mother-in-law to son-in-law, and the movement from son-in-law to mother-in-law. Additionally, the son-in-law's attachment to his parents can intervene as a further factor in determining the level of mother-in-law-son-in-law conflict. To examine the factors and subfactors mentioned above, a questionnaire was developed for a first round of investigation and modified thereafter. Intentional sampling was used among 400 residents of the Seoul-Gyeonggi Metro Area, and 378 effective answers were obtained.

The results are as followings. Positive indicates that a factor aggravated the conflict; negative implies that it lessened tensions. Among the factors listed above, the son-in-law's education level and the son-in-law's parental attachment are shown as significant negative (-) factors on the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Concerning the wife, mother-in-law-daughter-in-law conflict showed a positive (+) effect, while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a negative (-) effect. Among the mother-in-law's

subfactors,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households, her agreement to the marriage, visitation frequency, and contact frequency all differently affected the son-in-law-mother-in-law conflict. With respect to resources, movement of economic resources from mother-in-law to son-in-law showed a positive (+) effect, while emotional resource movement in the same direction showed a negative (-) effect on the conflict. Also, economic resource movement from son-in-law to mother-in-law proved negative (-), while instrumental resource movement showed a positive (+) effect. In particular, the son-in-law's parental attachment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mother-in-law-daughter-in-law conflict and mother-in-law-son-in-law conflict. These results reveal that the conflict in question is happening within the family system rather than within the individual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law and son-in-law. Thus in order to ease this conflict, instead of a focus on individual sacrifice and understanding, there needs to be a systematic approach that includes the sub-system of the couple as well as the whole family system.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has investigated the son-in-law-mother-in-law relationship synthetically and systematically within the family system. Secondly, the mother-in-law's dissatisfaction with her son-in-law and daughter was shown to be a less-important factor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From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vide a more detailed and multifaceted analysis compared to previous research that used only unilateral analysis. Finally, resource movement in the mother-in-law-son-in-law relationship has been

assessed to be neither unconditional nor mutually beneficial. However, there are limits to generalizing these results because the sampling occurred among males only in the Seoul-Gyeonggi Metro Area and did not consider mother-in-laws' opinions alongside the son-in-laws' responses.

부 록 1. 설문지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하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장모-사위 관계에서 사위의 갈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설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다소 생각해 보지 못한 낯선 질문이더라도 답해주시면 장모-사위관계를 이해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평소 귀하의 생각이나 행동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모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들은 본 연구 이외의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8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박사과정 원정은
(wejzzang@hanmail.net)

◎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연령은?

- ① 25~30세 ② 31~35세 ③ 36세~40세
④ 41세~45세 ⑤ 46세~50세 ⑥ 51세 이상

2. 귀하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대학원 재학 포함)

3. 귀하의 직업은?

- ① 교사(평교사)
② 관리직(교장, 교감,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장, 과장, 관공서의 국장, 계장 등)
③ 사무직(회사원, 공무원)
④ 전문직(교수, 연구원, 의사, 약사, 간호사, 성직자, 법률가, 회계사 등)
⑤ 기술직 ⑥ 생산/기능직 ⑦ 판매/서비스직
⑧ 소규모 자영업 ⑨ 단순노무직 ⑩ 무직 ⑪ 기타

4. 귀하의 월 평균 수입은?

- ① 200만원 미만 ② 200~400만원 ③ 400~600만원
④ 600~800만원 ⑤ 800만 원 이상

5. 귀하는 현재 결혼 몇 년째입니까? ()년 째

9-4) 전반적으로 보면?

- ① 내가 우위다. ② 아내가 우위다. ③ 둘 다 비슷하다.

10. 귀하의 형제 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 2남 2녀 중 둘째)

(남 녀 중 째)

11. 부인의 형제 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남 녀 중 째)

12. 귀하의 부모님은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생존 ② 어머니만 생존
③ 아버지만 생존 ④ 두 분 모두 안 계심

13. 귀하의 장인, 장모님은 현재 생존해 계십니까?

- ① 두 분 모두 생존 ② 장모님만 생존

14. 귀하의 장모님 연세는 몇 세이십니까? (_____ 세)

15. 귀하의 장모님 학력은?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2~3년제 대학 졸업 ④ 4년제 대학 졸업
⑤ 대학원 졸업 (대학원 재학 포함)

16. 장모님과 동거중이거나 과거에 동거하셨다면 동거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____년 ____개월)

17. 귀하는 처가와 어느 정도 거리에 살고 계십니까?

- ① 도보로 가능한 거리 ② 승용차로 1시간 이내 거리
- ③ 승용차로 1~3시간 거리 ④ 승용차로 3시간 이상 거리
- ⑤ 승용차로 5시간 이상 거리

18. 귀하는 처가를 얼마나 직접 자주 방문하십니까?

- ① 1년에 1~3회 ② 1년에 4~12회 ③ 1달에 1회
- ④ 1달에 2~3회 ⑤ 1주일에 1회 ⑥ 1주일에 2~3회
- ⑦ 매일 ⑧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 ⑨ 기타

19. 귀하는 처가에 (혹은 장인 장모님께) 얼마나 직접 전화연락을 자주 드리십니까?

- ① 1년에 1~3회 ② 1년에 4~12회 ③ 1달에 1회
- ④ 1달에 2~3회 ⑤ 1주일에 1회 ⑥ 1주일에 2~3회
- ⑦ 매일 ⑧ 기타

20. 처가에서 귀하의 결혼 찬반 여부는 어떠하십니까?

- ① 찬성하였다. ② 반대하였다. ③ 그저 그러했다.

20-1) 처가에서 귀하의 결혼을 반대하셨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 ① 나이 차이 ② 학력 ③ 외모
- ④ 경제력 ⑤ 궁합 ⑥ 지역차이 ⑦ 기타

20-2) 귀하는 반대한 결혼 후 처가와 관계가 어떠십니까?

- ① 좋은 관계를 유지 한다. ② 그저 그렇다.
- ③ 불편한 관계이다.

21. 귀하의 장모님 직업은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2. 처가의 경제적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경제적으로 생활의 여유가 있는 정도의 수준
- ② 경제적으로 어렵지도 넉넉하지도 않을 정도의 수준
- ③ 기본적인 생활이 겨우 유지될 정도의 수준
- ④ 경제적인 소득원이 전혀 없어 자식의 도움 없이는 생활할 수 없는 수준

23. 본가와 처가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전반적으로 비교한다면 어떻습니까?

- ① 본가가 우위다. ② 처가가 우위다. ③ 둘 다 비슷하다.

24. 다음은 귀하의 가족관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 표 해주십시오.

내 용		좋은 편이다	좋지 않은 편이다
1	귀하는 아버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1	2
2	귀하는 어머님과 관계는 어떻습니까?	1	2
3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2
4	귀하의 아내와 장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2
5	귀하의 장인과 장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1	2

부록 2. 장모-사위 갈등 검사

※ 다음은 장모님과과의 관계에서 귀하가 어떻게 느끼시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장모님은 나를 남의 집 사위와 비교해 말씀하십니다.	1	2	3	4
2	장모님은 나를 마구 대하십니다.	1	2	3	4
3	장모님은 아내의 잘못을 전부 내 탓으로 돌리십니다.	1	2	3	4
4	장모님은 중요한 집안일을 결정할 때 나를 제외시키십니다.	1	2	3	4
5	장모님은 아내의 음식이나 의복 등을 손수 챙기십니다.	1	2	3	4
6	장모님은 내 이야기를 은연중 무시해버리곤 하십니다.	1	2	3	4
7	아내가 나보다는 장모님에게 더 잘한다.	1	2	3	4
8	장모님은 아내가 나에게 지나치게 잘한다고 여기십니다.	1	2	3	4
9	장모님은 결혼 후 딸이 자신에게 소홀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10	장모님과 나는 성격차이가 있다.	1	2	3	4
11	장모님은 매사에 참견(간섭)을 하십니다.	1	2	3	4
12	처가친척들에 대한 우애의 범위,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이 장모님과 서로 맞지 않는다.	1	2	3	4

부록 3. 고부갈등

※ 다음은 귀하의 어머니와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귀하의 상황과 가장 일치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어머니는 내 아내를 남의 집 며느리와 비교해 말씀하신다.	1	2	3	4
2	나의 어머니는 며느리를 시샘하고 질투하신다.	1	2	3	4
3	나의 어머니와 아내는 성격차이가 있다.	1	2	3	4
4	나의 어머니는 내가 아내 편만 든다고 여기신다.	1	2	3	4
5	나의 어머니는 처가 식구들을 도와주는 것을 못마땅해 하신다.	1	2	3	4

부록 4. 장모와 사위의 자원이전

※ 다음은 평소 장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고 드리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장모님은 여행비용이나 행사비용(생일, 경조금 등)을 도와주신다.	1	2	3	4	5
2	신혼 집 마련에 있어서 처가의 도움이 있었다.	1	2	3	4	5
3	장모님으로부터 결혼 후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	1	2	3	4	5
4	장모님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 등)을 구입할 때 사 주시거나 금전적으로 도와주신다.	1	2	3	4	5
5	장모님은 돈을 급하게 써야 할 때 돈을 빌려주시거나 도와주신다.	1	2	3	4	5
6	장모님은 내가 아프거나 내 자녀들이 아플 때 병원비 지불을 도와주신다.	1	2	3	4	5
7	장모님은 손 자녀 양육이나 교육을 도와주신다.	1	2	3	4	5
8	장모님은 집안일을 도와주시거나, 김장, 밑반찬, 간식 등을 해주신다.	1	2	3	4	5
9	장모님은 장을 담거나 김장할 때 오셔서 도와주신다.	1	2	3	4	5
10	장모님은 내 자녀들의 식사준비나 간식먹이기를 도와주신다.	1	2	3	4	5
11	장모님은 나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애쓰신다.	1	2	3	4	5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장모님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잘 감싸주신다.	1	2	3	4	5
13	장모님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신다.	1	2	3	4	5
14	장모님은 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주신다.	1	2	3	4	5
15	장모님은 나를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주신다.	1	2	3	4	5
16	나는 장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	1	2	3	4	5
17	나는 장모님의 생활비 일부를 정기적으로 드린다.	1	2	3	4	5
18	나는 장모님의 여행비용이나 행사비용(명절, 제사, 생신, 김장 등)을 드린다.	1	2	3	4	5
19	나는 장모님이 필요로 하는 물건(가구나 살림살이 등)을 구입하려 할 때 사드리거나 금전적으로 도와드린다.	1	2	3	4	5
20	나는 장모님이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돈을 빌려드리거나 도와드린다.	1	2	3	4	5
21	나는 장모님이 편찮으실 때 간호해 드리거나 병원에 모시고 간다.	1	2	3	4	5
22	나는 장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하는 경우 등 외출 시 함께 가 드린다.	1	2	3	4	5
23	나는 장모님의 집안 일(집안 보수, 못질하기, 전구 갈기 등)을 도와드린다.	1	2	3	4	5
24	나는 장모님이 손님을 치르시거나 일손이 부족 할 때 도와드린다.	1	2	3	4	5
25	나는 장모님의 고민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드리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6	나는 문제가 생길 때 장모님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의논드린다.	1	2	3	4	5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7	나는 장모님이 외롭지 않도록 말상대가 되어드린다.	1	2	3	4	5
28	나는 장모님을 염려해 주는 말이나 조언을 해 드린다.	1	2	3	4	5
29	나는 집안일을 결정할 때 장모님과 상의한다.	1	2	3	4	5
30	나는 장모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조언해 드린다.	1	2	3	4	5

부록 5. 결혼만족도

※ 다음은 결혼만족도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귀하의 현재 부부생활을 생각하시면서 가장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결혼생활에 대체로 만족한다.	1	2	3	4	5
2	우리는 다른 부부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3	내 결혼생활은 나쁜 점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1	2	3	4	5

부록 6. 부모애착척도

※ 다음은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귀하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십시오.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아버지(어머니)는 내 감정을 존중하여 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2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신뢰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3	나는 고민거리가 생기면 아버지(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어머니의 의견이 듣고 싶어진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4	장차 나는 내 자녀에게 나의 아버지(어머니) 같은 아버지(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5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것에 화가 나 있을 때 나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6	아버지(어머니)에게 내 문제나 갈등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줘야 별 소용이 없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7	나는 아버지(어머니)가 다른 유형의 어머니였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8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다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9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별로 이야기 하지 않으며, 만약 하게 되더라도 단지 피상적인 이야기만 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문 항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0	아버지(어머니)는 내가 어떤 일로 고민하거나 당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잘 알아차린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1	아버지(어머니)는 나와 이야기할 때 내 생각이나 주장을 잘 들어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2	나는 아버지(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좋아한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3	가끔 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볼 때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분노를 느낀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4	나는 아버지(어머니)께 내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5	나는 아버지(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16	아버지(어머니)와 나는 서로 무심하다.	부	1	2	3	4	5
		모	1	2	3	4	5

◆ 감사합니다 ◆

